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9월 26일(음력 8월 9일) 수요일 (주간) 제647 호

# 도심 법당 찾는 불자 는다

## 새벽 예불·주말법회 등 참석자 증가
## 법당 개방·정진 모임 결성 등 '효과'

직장인 김미정(33)씨의 하루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된다. 김씨는 새벽 4시 30분 봉은사에 도착해 새벽예불과 법왕루에서 108배를 마친 후 출근한다. 벌써 2개월째다. 김씨는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예불에 참석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만(45)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을 찾는다. 이씨는 "보통 밤 11시쯤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늘 문이 열려 있으니 자주 찾게 된다"고 말한다.

부산 미타선원 새벽정진회 회원인 김경숙(41)씨는 지난 7월부터 딸 차지원(6)양과 함께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4년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몸과 마음이 지친 김씨는 새벽예불을 드리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다고 한다.

'며칠 따라나서다 말겠지' 했던 지원이는 이제 엄마보다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선다. 자신의 변화로 딸아이가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새벽예불의 큰 성과다.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도심 사찰의 경우 새벽예불이나 주말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수시로 사찰을 찾는 직장인과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연일 동국대니, 사찰 교부금 불법지원이니 하는 기사들로 가득하지만, 불자들에게 불교는 '생활 속의 가르침'으로 더욱 굳게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 봉은사에서 만난 한 불자는 "언론 보도 때문에 절에 오기 싫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새벽예불 참석 아닙니까?"

9월 22일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대웅전을 24시간 개방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조계사는 대웅전을 개방한 후 포교취약계층인 직장인 불자 출입이 늘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사찰을 찾기 어려웠던 직장인들이 새벽이나 야간에도 사찰을 찾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증가했다. 서울시내에서 야간에도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조계사가 거의 유일하다.

대웅전 개방을 맞아 100일 기도도 진행됐다. 지난 100일 동안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던 불자들은 23일부터 약사여래불 정근을 시작했다. 오는 12월 31일 다시 회향하게 되면 아미타불 정근을 시작하게 된다.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인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이다. 기도 동참비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회향은 이웃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행활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최근 법회 참석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새벽예불에도 200여 명에 가까운 불자들이 동참하고, 일요법회에는 400~500여 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명진 스님은 취임 후 사찰 밖 출입을 금하고 '1000일 기도'에 입재했고, 예불 때 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이 전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예불 후 마당을 쓰는 울력에도 동참하는 모습이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봉은사 신도 김무웅(66)씨는 "스님들이 솔선수범해 예불을 올리고 법회에 참석하니, 신도들의 신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 역시 주지 스님의 노력으로 새벽예불 동참자가 20여 명 가까이 늘어난 경우. 직접 예불을 집전하고 있는 상진 스님은 "새벽예불은 수행의 기초"라고 말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새벽예불입니다. 새벽예불에 빠지지 않는 마음가짐은 우리 생활에 계(戒)가 되어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줍니다. 계를 지키며 살 때 맑아져서 고요한 마음, 정(定)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인해 비로소 혜(慧)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예불은 수행자나 재가자들 모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기초 수행인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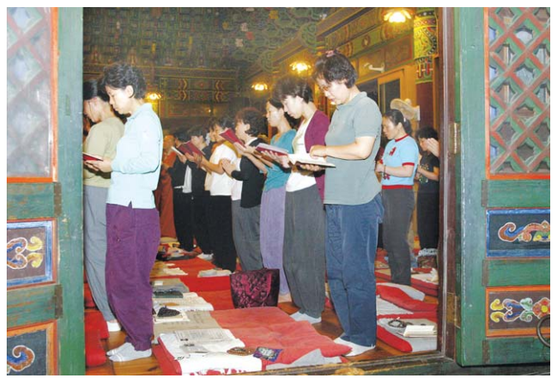
불지사 신도인 박춘성(49)씨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 새벽에도 구급차에 실려가곤 했는데, 새벽예불에 꾸준히 참석하고부터는 더욱 건강해졌다"며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면 환희심이 솟구친다"고 즐거워했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도 예불에 참석하는 인원이 부쩍 늘었다. 4개월 전 새벽예불을 중심으로 신행생활을 주도하는 불자들이 모여 '새벽정진회'(회장 김선주)를 창립했기 때문이다. 새벽정진회는 새벽예불 참석을 시작으로 도반들에게 법회 참석을 권유하고 서로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김선주 회장(49)은 "새벽예불을 매일 드리면서 마음과 가정의 평안을 찾은 회원들이 많다"고 말한다. "예불에 참석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변화를 가족들도 느껴 함께 예불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신행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독려하는 도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새벽정진회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한다. 하림 스님은 "현대인들은 불규칙적인 생활과 '빨리 빨리'하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다"며 "새벽예불에 참석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는 대신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게 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한다.

남동우 · 여수령 · 하성미 기자



'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사찰을 찾는 불자의 수는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9월20일 서울 봉은사 새벽예불에 참석한 불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 추석연휴 신문 배송 안내

본지 647호는 9월 21일 제작하여 22일 정상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추석 연휴 업무 정체 관계로 독자여러분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휴 관계로 648호는 10월 6일 발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추락? "우린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종립대학 동국대가 연일 매스컴에 이름을 올리며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학교의 이미지 추락으로 의기소침해질 법도 하지만,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9월 2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 실천불교승가회 자료집 발간

지난 2006년 5월 한국 사찰의 위기에 대한 총론적 진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세미나와 두 차례의 선진 사찰 견학을 진행한 바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책으로 발간했다.

자료집은 총 211페이지 분량으로 세미나 기조발제문과 세미나 토론 내용, 그리고 사찰 견학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세미나 당시 발표된 사찰경영요소 분석과 2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찰 재정 분석과 확충 대안 그리고 각종 문제점 분석, 교계 처음으로 제시된 종단 및 사찰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02)725-4277 김주일 기자

社告

###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100년의 역사, 새로운 100년의 꿈
조계사 창건 97주년 기념 주간 안내 창건일 10월 13일(음력 9월 3일)토요일

유아 수기 법회
10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불교의 희망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수기의식을 봉행합니다. (대상 : 태중아기~7세이하 유아)

이주노동자 수계법회 및 문화행사
10월 7일(일) 오전11시 ~ 오후4시, 대웅전 및 주변
1부 수계법회 / 2부 화합마당 / 3부 체험마당 / 4부 공연마당

불교대학 3000배 철야용맹정진
10월 13일(토) 저녁 7시 ~ 다음날 새벽 4시

조계사 창건97주년기념 대중강연회
10월 8일 근대한국불교와 조계사 (이이화 / 역사학자)
10월 9일 현대한국불교의 얼굴 (조정래 / 소설가)
10월 10일 미래한국불교를 위해 조계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명곤 / 前문화관광부장관)

역대 주지스님 초청법회
10월 8일~10일(3일간) 오전 11시, 대웅전
역대 주지스님을 초청하여 조계사 창건의 의의와 현재성을 되짚어봅니다.

궁중선다례제
10월 11일(목) 12시 20분 ~ 오후 2시
명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왕이 스님들을 초청해 차를 대접하던 행사인 궁중다례의식을 조계사에서 봉행합니다.

제5회 회화나무음악회
10월 12일(금) 저녁 6시 ~ 8시, 조계사 특설무대
출연 : 힙합뮤지션 MC Sniper, 재즈보컬 웅산, 강혜윤 김형렬, 조계사 무용단, 조계사 대학생회 조계사 합창단 등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 | 만남 | 미래

# '학력위조'에서 '국고지원 외압' 확산

## '신정아 사건' 수사 가속도…불교계에 총체적 부담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 학력위조 사건이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별교부세 지원 외압으로 불거지는 등 불교계가 한바탕 진통을 겪고 있다.

△**흥덕사 10억 지원 '외압' 의혹**=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은 9월 20일 한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혀 변 전 실장에게 흥덕사에 대한 국가교부금 지원 요청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영배 스님은 "이 지원액으로 처음에는 도서관 설립을 추진해볼까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서관은 물론 미술관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따라서 경북 울주군에서 다른 분야의 필요한 곳에 일단 10억원을 쓰고 군 예산으로 상응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일부를 신정아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배 스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아직 그 돈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흥덕사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東大이사회 "비호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9월 19일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동국대학교 영배 이사장 스님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울주군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특정 목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신씨 임용 당시 영배 스님은 상임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공식적인 조사 내용이 보고되기 전에 허위학력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없었을 뿐 비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천 보광사 지원금도 '의혹'**=변 前 실장이 신도로 등록된 과천 보광사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월 20일 경기도와 과천시에 따르면 보광사 부속건물 공사비용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

2004년 보광사 지장전 단청공사 비용으로 1억7200만원, 2006년 보광사 지장전 단청공사 비용 4800만원, 같은 해 소화전 설치공사 비용으로 7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에는 보광사 설법전 증축공사 비용으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과천시에 위치한 또 다른 전통사찰 연주암에 대한 지원비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시비 비율을 4:2:2로 정확히 지켜 특정사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 김기세 문화체육과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을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국·도비가 신청액수보다 적게 지급됐을 때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 이사진 총사퇴 요구**=한편 동국대 교수들은 9월 16일 '신정아 학력위조 사태'와 관련해 재단 이사진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재형 교수(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외 동국대 119명 교수들은 '오늘의 동국대학교 사태를 바라보는 교수들의 입장과 요구'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는 최근 몇개월 동안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의 발원지로 개교 이래 최악의 치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학교 당국은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배 이사장은 제228회 이사회에서 '가짜학위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동국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北 수해 빠른 복구 '응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19일 인천항 제3부두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밀가루 85톤, 식용유 1만5120리터, 라면 1700박스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북으로 보냈다. 이날 선적된 물품은 인천항을 출발해 남포항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이 인수,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김주일 기자

## 출가 50주년 맞아 법어집 봉정

### 법륜종 원로원장 혜우 스님

(재)법륜종 원로원장인 혜우 스님 출가50주년 법회가 9월 15일 포천 길상사에서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법륜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은 축사에서 "사찰을 세우는 것은 사바세계에 극락세계 즉 성지를 세우는 것인데 스님께서는 많은 불사를 하셨다"며 "덕 높은 법력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해 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혜우 스님은 법어집인 <여여>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여여>는 '불설편' '법문편' '고승편' '고담편' '갈등해소법'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총 50편의 글이 실려 있다.

또 스님은 종문통요 사승 전수식을 갖고 도승 스님 등 상좌 22명에게 정법안장을 수여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 중앙포교원장 무공, 법륜종 前 총무원장 덕산, 덕암문도회장 혜각, 포천사암연합회장 혜승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 조동종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 봉행

### 15일부터 종도교육 진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9월 18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 극락전에서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종정 지명, 승정위원 법공, 호법원장 혜천, 총무원장 대은 스님 등 종단 임원진과 수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종정 지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구족계는 완전한 승려의 반열이며, 시작이다. 과거의 과보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계를 수지해야 한다. 귀중한 시간으로 뜻을 새기고 간직하라. 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동종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종도교육을 진행한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 임명



강화 전등사 주지에 혜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사진)이 9월 19일자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장윤 스님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혜경 스님은 198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승사 등의 선방에서 정진했다. 또 장원사 주지와 동화사 포교국장, 총무원 재정국장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 "흑색선전 단호히 대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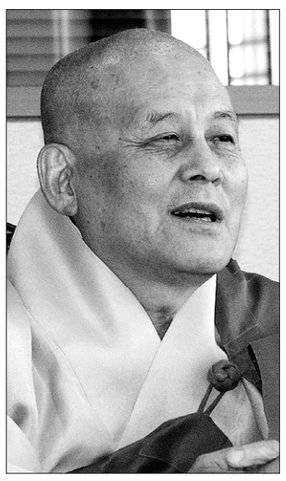
### 지관 스님 종단 상황 관련 심경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이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관 스님은 9월 17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흑색선전에 대한 심경을 묻자 "자신의 목적과 뜻에 안 맞는다고 흑색선전하고 모략하면 내 개인은 괜찮지만 총무원장인 내가 망신당하면 1700만 불자들이 실망한다.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나를 퇴진시킨다는 사람 마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종단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모략을 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종단의 기강이 잡힌다. 또 이를 방조하면 응분의 처벌을 할 강한 의지가 이번에 생겼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중원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선거무효소송과 관련 "동국대 총장 시절 문제도 업무방해죄일 뿐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정관에도 조계종 종지를 봉대한다고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남동우 기자**

## 중앙불교대학원 개원 법회 봉행

### 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부설 중앙불교대학원이 개원이래 9월 15일 첫 입학식을 진행했다.

안성 영평사내 3층 규모의 최신식 시설로 설립된 대학원은 영평사 신도회장 도림행 보살의 원력으로 2년여 불사에 걸쳐 완성됐다.

대학원장은 연합회 회장인 회암 스님이 맡았다. 중앙불교대학원은 종단의 주요스님들이 교수진으로 포진돼 불교교리와 의식, 포교방법 등을 체계화해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사암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회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스님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한국불교 도제양성의 기초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31)676-0908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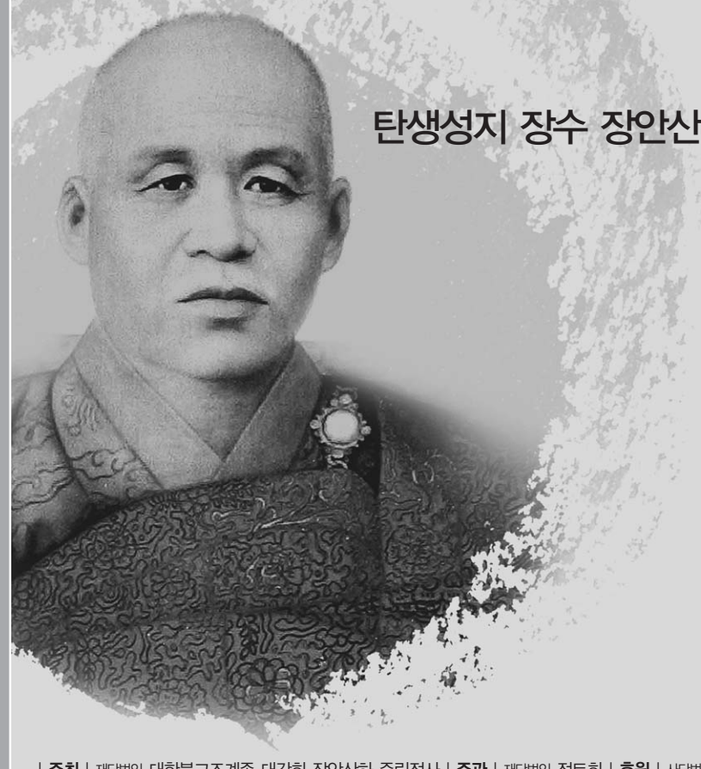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이시고 이 운동의 막후 기둥이셨던 온 겨레의 육신보살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낙성회향법회**



**민족중흥과 불교중흥 발원 만등관등불사**

한국근현대사에 있어서의 빛이요,
한국근대불교의 중흥조이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불기2551년 용성 진종조사 오도일 10월 9일(음력 8월 29일)을 맞이합니다.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 죽림정사 낙성 회향법회를 기념하여
민족중흥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만등관등불사를 합니다.
부디 불자님들의 지극한 불심으로 1가족 1등 3만원 모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지난 업장 소멸하고
집안의 모든 재앙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두손 모아 합장합니다.
불자님들의 큰 자비심과 정성이 불연을 꽃피웁니다.

조실 불심 도문(佛心道文)
주지 지광 법륜(智光法輪) 합장

**죽림정사**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이시고, 이 운동의 막후 기둥이셨던 온 겨레의 육신보살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는, 민족의 지도자 용성 진종조사의 업적과 사상을 사회화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학술세미나
**때** : 2007년 10월 8일(음력 8월 28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 주제발표 ]**
**기조발제** :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사상과 한국 불교의 좌표
**주제발표** : 용성의 사상 및 법의 계승
근대불교의 대처론과 용성 건백서의 의의
용성문도와 조계종단
용성 조사의 업적 이어가기

죽림정사 낙성회향법회
**때** : 2007년 10월 9일(음력 8월 29일) (화) 오전 11시 ~ 12시 30분
**프로그램** : 개회식, 경과보고, 불교계 관계부처 주요인사 축사, 법어, 축하공연

용성 음악제
**때** : 2007년 10월 9일(음력 8월 29일) (화) 낮 1시 ~ 2시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장소** : 죽림정사

☞ 행사에 동참하시는 분께 차량을 지원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담당 : 장도연 011-9496-8496 전화 02-587-8994 팩스 02-586-1950**

**주최**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장안산하 죽림정사 | **주관** | 재단법인 정토회 | **후원** | 사단법인 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용성 진종조사 유훈실현후원회·전라북도 장수군
**협찬** | 국가보훈처,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법보신문, 불교신문 | **문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죽림정사 (063-353-0108 / 전송 063-353-8500) 서울사무국 (02-587-8994 / 전송 02-586-1950)



창립1주년기념법회를 마치고 충주 중앙탑 탑돌이를 하고있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

# "방방곡곡 佛心 심고 농촌사랑"

## 108산사순례기도회 1주년 맞아 충주중앙탑서 기념법회

108산사순례기도회가 9월 15일 충주시 중앙탑(국보 제6호)에서 영산재, 축하공연, 유등제 등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반도 중심에서 시작되는 농촌사랑'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날 1주년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부의장 동광 스님, 정우택 충북도지사,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참석해 농촌사랑에 힘쓴 회원들을 축하했다.

이날 1주년 기념행사에도 회원들은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초코파이 한 상자씩, 4만개가 넘는 초코파이를 인근 공군부대에 전달했다. 또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미 108가마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1주년 기념법회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지난 1년의 결과를 원만 회향하고, 이전 보다 더욱 발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농촌을 돕고 앞장서 온 점은 귀감이 될 만하다"며 기도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지관 스님,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은 농촌사랑의 염원이 담긴 사과등(燈)을 충주호에 띄우고 유등제에도 동참했다. 이날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1만여개의 유등을 물 위에 띄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면서 고원의 등불을 밝혔다.

창립 1주년을 맞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그동안 많은 진기록을 양산하며 전국에 숱한 화제가 됐다. 도선사에서 시작한 순례는 매월 한 곳씩,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3보(寶) 사찰을 거쳐 경국사(서울) 관촉사(충남) 내소사(전북) 도갑사(전남) 신륵사(경기) 낙산사(강원) 봉정사(경북) 수덕사(충남) 등 전국 각도를 거의 순회했다. 3000여명에서 시작된 순례단 규모는 거의 5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단일 기도회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래서 보통 2~3일에 나눠 성지순례가 펼쳐진다. 순례날 해당 사찰 앞 주차장에 대형버스 50~60대가 줄지어 서 있는 것도 108산사기도회 순례 때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순례단은 지역농산물과 군포교 활성화에도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순례단은 송광사 순례 때부터 지역 특산 농산물 장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관촉사 순례 때부터는 사찰 인근의 군부대에 장병 간식용 초코파이를 기증하고 있다. 또한 내소사 순례때부터는 '환경지킴이'를 조직해 방문사찰 주변을 청소하고, 1회용 컵 대신 참가자들에겐 '환경컵'도 1개씩 배포하는 등 사찰 주변 환경 지킴이 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순례 시작 때에는 보통 1개월에 1~2곳을 찾으려 했지만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매월 한 곳 이상을 순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금 추세로 라면 회향까지는 대략 7~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남북 평화통일에도 일조하기 위해 내년 3월 금강산 신계사에서 대규모 법회도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8산사순례기도회가 1년간 펼쳐온 순례여정과 농촌 · 군장병 · 환경사랑의 대장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9월 23일 KBS 1TV 추석맞이 특집 프로그램 '산사에 장이 선 까닭은?'을 통해 방영됐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환영"

## 불교단체연대회의 성명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천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불교단체연대회의는 9월 19일 정부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2002년 오태양 불자와 2003년 김도형 불자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단체연대회의는 "금번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그간의 병역거부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본다"고 피력했다.

또 "금번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병역의무에 대한 징벌과 징계적 의미가 아닌 '민간대체복무 및 비전투분야의 복무'가 사회제도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를 기대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 "국론분열 편향 발언 사과하라"

##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9월 20일 '국론분열과 독립지사를 모독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발언에 대한 통곡'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암기념사업회측은 "청계천을 복원하는 대공사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선교에 열을 올렸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광주 사태' 등 이명박 후보는 숱한 망발로 인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암기념사업회는 "기독교 편향적인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이명박 후보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기독교 장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 이현세 초청 월례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10월 10일 오후 4시 조계사 극락전 2층 대설법전에서 만화가 이현세씨(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초청 월례특강을 개최한다. 이씨는 이날 강연에서 '이 사람의 인생 그리고 상담'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02)737-8803 여수령 기자






## I Love Buddha /감사한 일상들

용정운(www.zentoon.com)




## 범하·홍선 스님 등 성보보존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성보보존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62명을 새로 위촉했다.

성보보존위원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을 비롯해 정책분과에 흥선 스님(직지사 박물관장), 동산분과에 최성은 교수(덕성여대), 고고 및 건축분과에 김동현 석좌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박물관 · 보존분과에 정암 스님(수덕사 근역성보관장), 무형분과에 동주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 등이 포함됐다.

조계종은 올해 성보보존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합하고 4년이었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했으며, 성보보존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성보보존위원회령을 개정했다. 또한 각 분과별로 해당 전공의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수령 기자

## '경부운하 허와실'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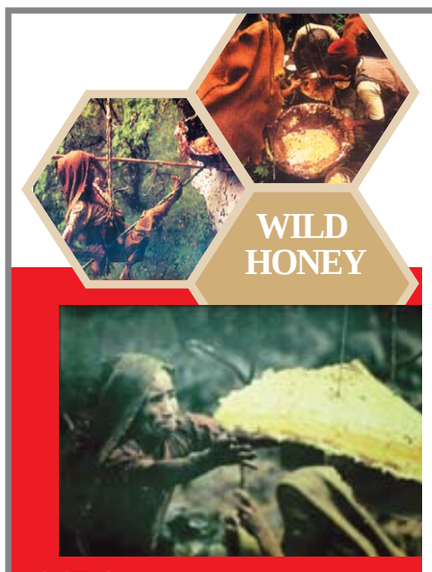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환경과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부운하 정책검증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이 찬성 의견을, 불교환경연대 등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측에서 반대 의견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김주일 기자

## 우승택 초청 '투자' 강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7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3회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지난 1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사후 시신 · 각막 기증, 뇌사시 장기기증을 한 지원자 115명의 영가를 위해 봉행되는 것으로, 기증자의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도 봉행된다. (02)734-8050 여수령 기자


놀라운 히말라야 석청(꿀)

히말라야 석청은 지역, 환경, 높이, 계절 등에 따라 A급,B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고급의 A급 석청은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해발 3,500~4,000m 사이 험지의 계곡, 절벽틈사이에 있으며 이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은 최고급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석청은 보통 같은 장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채취가 가능하므로 그만큼 귀한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석청은 한번에 많이 복용한다고 빨리 약효를 보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많이 아픈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을 복용하시다 하루종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석청을 복용하는 네팔의 왕족이나 티벳의 고승들도 하루에 10mm 정도를 2~3번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균정이란?

신체불균형 예방과 균정술(均整術)을 통해 자세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여 잘못되었던 모든 기능들을 현저하게 회복 시키면서 운동능력을 향상 시킨다.

현대인의 병명이 없는 병, 무기력,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요통, 성기능강화, 학업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에 최고의 수기요법이다.

대한신체균정

중풍.만성피로.혈액순환.비만.오십견
디스크.골반.짝다리.척추.자세균정 등

놀라운 효과

히말라야 석청은 다양한 질병과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몸의 독소를 내보내 체질을 개선시키는가 하면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 만성질병을 치료하는데 으뜸입니다.
또한 간혹 석청을 적량 이상 드셨을때 '명현현상'이 일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던 석청이 몸속의 독소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자연적으로 몸의 아픈곳을 공략하여 치료를 해주는데 이 과정이 차츰 몸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청은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관절염, 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고질병, 혈액순환장애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

신체 균정 氣 순환 운동요법 | 네팔 약재 무역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도소 수행자 기금으로 쓰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문의 : 011-9750-8434
국민:650701-01-176636(예금주 : 원용대)

상기 상품(신발, 석청)구입시 대한신체균정 협회에서 무료 교정 및 시술해 드립니다.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한국원천기술로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부산최고 생산공장에서 완성도 높게 제작된 마사이워킹슈즈 거품을 뺀 합리적인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르게 걷는 방법
01 RYN을 신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02 7만히 서서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발목을 돌리기며 발목과 무릎근육을 긴장을 풀어준다.
03 발뒤꿈치 바깥쪽부터 닫는다.
04 발중앙에 무게중심을 옮긴다.

"발과 가장 닮은 신발,
구름위를 걷는듯한 편안함,
건강해 집니다.
그리고 행복해 집니다."

전국 130여개 대리점에서
절찬 판매중입니다.


캐쥬얼 그레이 민트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레드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50
•재질 : 가죽

캐쥬얼 블랙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캐쥬얼 드림 Masaian Casual Series


가격:198,000원
SIZE / 225 - 285
•재질 : 가죽






RYN Awards | 마사이 워킹슈즈린 수상내역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 헤럴드경제 베스트상품선정 | 주간여성 히트상품대상

# 학교로 간 '빈그릇 운동'

## 부산지역 교사·영양사 300명 심포지엄 개최

전세계적으로 한해 15조원의 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비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환경운동 '빈그릇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에코붓다(대표 유정길)는 9월 13일 부산시 남부교육청 강당에서 지역 교사와 영양사, 시교육청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 빈그릇 운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최광수 교수(경상대)는 기조발제에서 '학교 빈그릇 운동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빈그릇 운동의 효과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학교의 경제·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교육교재 개발, 정보교류의 장 마련, 급식의 제도적 여건 성숙 및 급식 질 향상, 시범학교 운영 등 빈그릇 확산 및 정착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정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빈그릇 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란 의미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성 연구원은 "빈그릇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며 생태적 원리에 순응하는 인간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빈그릇 운동은 미래세대도 동등하게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참여하며 활동하는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사와 영양사들은 '음식 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명 및 모금에 참여했고 이날 마련한 기금은 쓰레기 제로 운동과 굶주리는 아동들을 위해 지원됐다.

하성미 기자

# 호스피스 교육 차원 높인다

## 정토사관자재회,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개원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법인이사장 능행)는 10월 7일 오전 10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서 관자재 요양병원 교육관 '마하보디센터'를 개원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1995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고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볼 것을 발원하며 창립한 단체. 1997년 한국불교 간병인협회를 창단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인교육 및 간병인 지원 사업을 이끌어온 정토사관자재회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열게 됐다.

마하보디센터는 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인성개발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불교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연 3~4회 전문호스피스 교육과 사회복지 종사자 위탁교육 및 노인요양원, 의료기관 종사자 인성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또 기업 중간관리자들과 CEO들을 위한 명상수행, 자아성장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관자재회 관계자는 "12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간병인 교육을 이끌어 왔는데 전문 교육 공간이 갖춰지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자재 병원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08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교육생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43)298-2258

하성미 기자

# "흥덕사 다시 세우자"

## 건립 추진위 구성 시민운동 전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흥덕사를 복원하기 위한 '흥덕사 건립 촉진 결의대회'가 9월 8일 청주 흥덕자시 앞마당에서 열렸다. (사진)

흥덕사 건립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명의)는 이날 각의 스님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흥덕사 건립을 발원했다.

박명의 위원장은 "1985년에 흥덕사지가 발굴된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지>를 존재케 한 흥덕사가 건립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며 "오늘 결의대회는 청주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사명감을 공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 흥덕사 건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흥덕사를 우리 민족의 문화 유적지로 조성해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를 이룩한다는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 대중 속 佛光 더 환하게

## 불광사 33주년 맞아 '중창' … 강좌 개최·지역밀착 사보 발간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서울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대중강좌와 지역밀착형 사보발간 등으로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다. 1974년 <월간 불광> 발행을 시작으로 1975년 불광법회 창립, 1982년 잠실 불광사 창건에 이르기까지 광덕 스님이 이끈 '불광운동'은 대중 불교·도심포교의 새 모델을 일궈냈다.



불광사는 오는 10월 16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해 안으로는 '불광 중창불사'를 통한 포교 인프라 구축에, 밖으로는 대중강연과 새로운 개념의 사보 <공감 Plus> 발간 등을 통한 대중포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된 중창불사는 10월 14일 열리는 창립기념법회에서 중창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불사의 밑그림을 그린 후 내년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현재의 법당을 허물고 새로운 법당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수 불광사 종무실장은 "불광사 중창불사는 단순한 외형 불사가 아니라 21세기 문명의 변화에 발맞추고, 시민사회·지역과 함께하는 사찰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재건축 불사는 불광사의 지향점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광사가 추진하는 또 다른 불사는 최근 발간한 불교계 최초의 '지역 밀착형 사보'인 <공감 Plus>다. 사보들 대부분이 불교교리와 사찰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데 반해, <공감 Plus>는 불광사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인근 강동·광진·성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잡지 형식으로 꾸려졌다. 올림픽공원과 방이동 습지 탐방, 한성백제 문화제와 송파장터 현장, 송파여성축구단과 석촌호수 지킴이 김형진씨 인터뷰 등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가득하다.



불광사가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담아 펴낸 새로운 개념의 사보 <공감 Plus>(사진 위)와 불광사 중창불사 조감도.

지홍 스님은 <공감 Plus> 창간사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을 발로 뛰어 발굴한 정보를 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종교와 지역, 연령, 직업을 떠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 Plus>는 격월간 무가지로 발간된다. 불광사는 창간호 700여 부를 지역 교육시설과 관공서·복지단체 등에 발송했고,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불광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무비스님 초청 불광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창립기념행사 및 불광사 중창불사 추진위원회 부촉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정과 불교'를 주제로 대중강좌도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정과 불교' 강좌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가정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김외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의 '부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10월 10일),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교적 자녀 교육의 해법'(10월 17일),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의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10월 24일), 양진명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의 '대화로 풀어가는 가정'(10월 31일), 이영호 한국생활개선진흥회 책임연구원의 '함께 가는 불자가정'(11월 7일)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불광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200명만 접수를 받는다.(02)417-255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 후원 : (국민은행)038-25-0008-365 예금주:에이치비엠씨

## 스리랑카, 사마디 불상 기증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정부수교 30주년을 맞아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가 사마디 불상 및 발우탑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기증받았다.

9월 14일 부산 태종사에서 봉행한 제막식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정각 스님, 부산 대각사 회주 경우 스님, 박인태 부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과 스리랑카 복지부 장관 외 각료 3명, 사절단 및 수행원 50여명이 참가했다.

스리랑카 정부의 사마디 불상과 발우탑 기증은 1983년 전두환 前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할 당시 우리나라와 수교한 기념으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나무를 기증한 이래 두 번째. 현재 태종사에는 그 당시 우리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나무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 하성미 기자

## 부산서 '채식 세미나' 개최

부산경남지부 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대표 고용석)는 10월 3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4층 사랑방에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삶'이란 주제로 채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석 대표가 '채식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채식과 생명사랑'을 설명한다. 이어 성심정보고등학교 변환웅 교사가 '채식과 환경'을, 이영선 치과의원 원장이 '채식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비는 무료. 018-213-7541

## 고창군에 복지시설 3곳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 전북 고창군 내 복지시설 3곳을 수탁했다. 그간 복지시설이 없었던 고창군은 최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지난 9월 7일 고창군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심사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수탁한 3개 복지시설은 선운사(주지 법만)와 재단이 연합 결성한 '조계종복지재단 선운사지부'가 운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고창군 시설 위탁을 기점으로 그간 취약했던 전북 서남부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Beomeosa Korean Seon Festival 2007

禪 행복참선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Korean Seon (Buddhist meditation) with Happiness

2007 범어사 개산선문화축제 개산 1329년

2007년 10월 12일(금)부터 10월 14일(일)까지 장소 : 선찰대본산 범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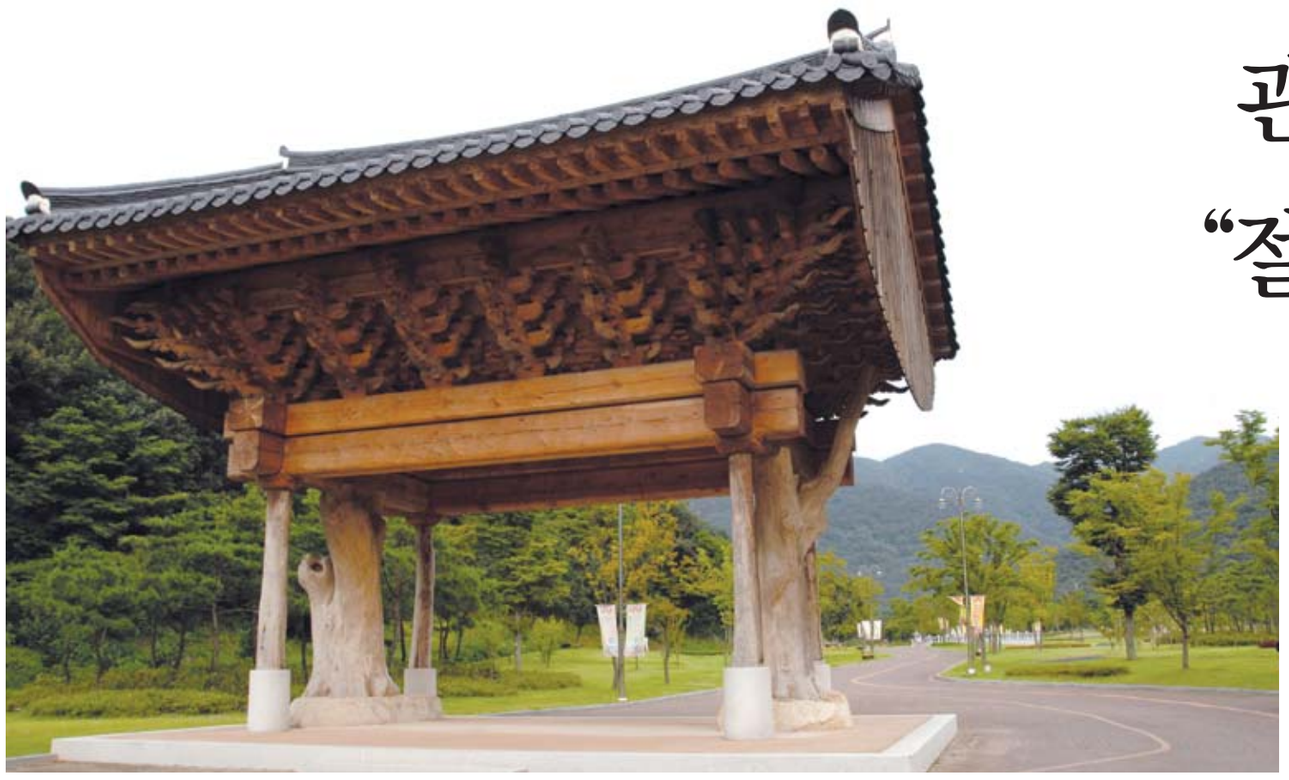
주요행사
강연행사 : 행복불자가족 참선법회 (출연 : 방송인 강부자), 명사초청 행복불자강연 (출연 : 작가 박범신), 스님초청 행복참선강좌
의식행사 : 괘불, 법요식, 다비식
전시행사 : 본·말사 문화재 전시(전적특별전 및 무용거사 전각전시), 미얀마 불교문화 사진초대전, BBS 사진가회 사찰사진 전시(연꽃 및 사찰풍물사진전), 중견작가 초대전(아름다운 동행, 야단법석전), 사경전시, 금니달마 전시
체험행사 : 가족사랑 명상걷기대회, 범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선문화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선차 및 다과 체험, 한국 전래문화 체험, 불무도 체험, 의상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공연행사 : 개막식 및 합창제 (초대가수 : 이은미) - 가족행복 기원등 밝히기, 산사가족음악회 (초대가수 : 웅산) - 비보이 & 퓨전국악, 손정화 외 성악가 3인, 기라향우리춤연구소,



참가 및 접수 문의 www.beomeosa.co.kr
범어사 개산 선문화축제 봉행위원회 : Tel 051) 508 - 3023 Fax 051) 508 - 3034
주최 : 선찰대본산 범어사
주관 : 범어사 개산 선문화축제 봉행위원회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주)리컨벤션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부산불교거사림회, 부산광역시, 부산불교실업인회, 범어사 신도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금정구청,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 관광지 조성 소득 '쑥쑥'
# "절은 마을의 큰집이에요"



자연스런 나무기둥이 돋보이는 불갑사 일주문.



대웅전



모악리 풍경.



붉은 바다를 이룬 상시화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㉙ 불갑산 불갑사**

## 일주문 안 관광공원 조성 위해 사찰서 토지 선뜻
## 사찰·지역주민 "상생하는 관계 만들어야" 공감

불갑사로 향하는 길에서 비를 만났다. 비가 그려내는 수채화는 언제보아도 아름답다. 젖은 나뭇잎이 은전처럼 찰랑찰랑 흔들어 댄다. 다소곳하게 자신을 내주고 있는 풍경들에게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비가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만 바람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라고 채근하는 듯하다. 아랫마을 모악리를 지나 절집으로 향하는 길가에 꽃무릇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 성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문득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불갑산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곳은 이념의 벽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겨누다 쓰러져 간 젊은이들이 피 바다를 이룬 지역이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꽃무릇(상사화)이 피어난 것은 아닐까. 산자락이 붉은 꽃물로 흥건히 젖어 있다. 묘비명 같은 상사화를 보며 묵념을 올려본다.

불갑사는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마라난타존자가 남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에 영광땅 법성포로 들어와 창건하였다. <해동고승전>에 최초로 창건한 사찰이 모악산 불갑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후기 각진 국사가 크게 중창하여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렀고 사전이 십리 밖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천년고찰 불갑사 대웅전은 조선중기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830호로 지정되었고, 사천왕상은 지방문화재 159호이다. 불교의 '불'자와 육십갑자의 으뜸인 '갑'자를 한 글자씩 따서 불갑사라 이름 지었다.

수행은 자기 내면을 향해 걸어가는 긴 여정이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에 수행하는 심정으로 절집이 안고 살아가는 사하촌 이야기를 들어보자. 모악리는 3개 부락에 54호 146명이 모여산다.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기계화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여 초등학생들도 있단다. 예전에는 영광의 오지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영광의 7대 관광지라고 최병대 이장님의 자랑이 늘어진다.

"모악리는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모두 불갑사 절 때문이지요. 앞으로 마을앞 도로도 3차선으로 놓을 예정이지요. 광주까지 30분 정도면 나가고 관광버스도 순회한다고 합니다. 법성포구, 백수해안도로, 원자력발전소, 저수지, 내산서원, 불갑사 등 볼만한 관광지가 많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골 풍경처럼 절집도 문명의 속도를 읽고 있는 듯하다. 5년 전 불갑사에 들렀을 때 절집으로 통하는 길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순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문 안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왠지 걸어야할 것만 같은 길이다. 넓은 주차장에 주차료도 안 받고 입장료를 받는 요금소도 없어서 일주문이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문 같다. 예나 지금이나 불갑사에는 산문 밖이나 안의 경계가 없다. 도솔천을 지나 절집으로 통하는 길은 산란하고 불안한 마음도 다 내려놓으라고 유도한다.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돌계단을 올라서니 천왕문이 지극한 합장을 하고 맞이한다. 포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절집이다.

불갑사 일주문 안에 관광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불갑사 만당 스님의 역할이 컸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 정도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사찰이 땅을 내 놓았단다. 만당 스님은 지역주민들도 잘살게 하고 불갑사의 옛 명성도 되찾으려 애쓰고 있다. 절집 주소가 모악리 8번지인데 출장 떠난 스님에게 민방위 훈련이 떨어지면 이장님이 대신 국민의 의무를 져주기도 한단다. 그런가 하면 절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외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준다. "올봄 꽃보기 관광지를 조성하여 논과 밭에 유채를 심었지요.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꽃도 보여주고, 음식도 팔았어요. 산골마을에 절집이 없으면 축제가 불가능하지요."

이장님이 9월 20일 꽃무릇 축제를 놓고 주지스님을 찾았다. "불갑사가 마을의 큰집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네요" 라는 질문에 스님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따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찰과 사하촌이 괴리되어 있고는 존재의 의미가 없죠. 주민들도 사찰이 있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절이 있어야 산 맛이 나고 절에는 스님이 있어야 절 맛이 납니다. 사찰이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때 제대로 빛이 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불갑사는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매표를 하고 관광지로 발전하려는 욕심을 보이면 주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마련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근본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불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영광에 핵 폐기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절집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를 반대했단다. 영광을 아끼고 사랑하는 스님이라고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 사하촌에는 절집과 소통되는 오랜 문화를 계승해 오고 있다. "우리 마을은 음력 일월 십오일 새끼줄을 감아서 당산제를 지내지요. 당산나무할아버지와 수산할매가 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새끼를 왼손을 꼬아서 금줄을 쳐줍니다. 수산할매는 줄을 드려서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지요. 여자들에게 져주어야 풍년이 든다는 풍습이 있어 3번 싸움을 하면 여자들이 두 번 이기게 합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농악대들이 길놀이를 하며 수산할매바위에 줄을 감아 놓지요."

마을 사람들 정성 탓인지 장수하는 마을이고 효부가 많은 마을이란다. 이장님은 모악리의 야사를 들려주었다. "마을 앞으로 지나는 개울에 한물이 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학교갈 때 업어서 강변을 건네주었지요. 비가 오면 나무다리가 자주 떠내려갔어요. 나무가 귀하던 시절인데도 불갑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다리를 놓으며 살았지요. 땔나무가 없을 때도 불갑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때며 살았어요. 스님들은 중생들이 필요하면 뭐든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나와 벌금을 물리고 그랬지요."

지금도 땅이 없는 마을사람들은 절집 산에 묘를 쓴다. 그러나 절집에서 말리는 일은 없단다. 마을 사람들은 불갑사가 잘되어야 마을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하촌 사람들은 모시잎 송편을 향토음식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절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맛을 보였는데 인기가 있단다. 산과 들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자연산 뽕잎을 따다가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면 쌀도 소비가 되어 일거양득이란다. 브랜드 효과를 얻어내려는 마을 사람들 계획안을 듣고 주지스님은 절집 땅 삼천평을 내놓을 테니 마을의 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하라고 했다. 눈이 맑은 만당 스님은 불감정각(不取正覺)을 마음 한 복판에 새겨두고 사는 것 아닐까.

영광= 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Tip 꽃무릇 볼 만한 길**

꽃무릇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대웅전 뒤편 저수지를 지나 동백골-구수재-불영대-연실봉-해불암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다. 저수지 옆에 핀 꽃무릇군락과 동백골에서 구수재로 가는 중간 불영대 주변에 볼거리가 많다. 신선한 가을 산행도 즐기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군락의 빨간 열매로 가을 느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내신 80점 이상)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건강진단서 1통(영문)<br>·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br>· 입학신청서 1통<br>· 여권용 사진 10매 |
| 석사과정 | 3년 | 5명 (평점3.5이상) | |
| 박사과정 | 3년 | 3명 | |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10월 12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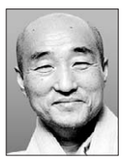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 일주문



**노인의날 행사 및 가을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사장 성운 스님은 10월 4일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파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02)385-1351



**논산훈련소서 생명나눔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15일 논산훈련소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등록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5~7일 '공생과 희망'을 주제로 제4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033)332-6661



**장수죽림정사 성역화불사 낙성**
장수 죽림정사 주지 법륜 스님은 10월 9일 오전 11시 죽림정사에서 성역화종합불사 낙성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63)353-0108



**16회 행원문화상 시상**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9월 14일 서울 승가원에서 제16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곡가 이종만씨와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이 수상했다.



**전교생에 장학증서 수여**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은 9월 20일 신입생 면학장학금(104명)과 금강 리더십 장학금(156명)을 비롯해 전교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월해종 종정 월해 스님 입적



월해종 종정 월해 스님(사진)이 8월 25일 단양 구복암(주지 동월)에서 열반에 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납 107세. 월해 스님은 1900년 12월 12일 황해도 서흥군 도면 서곡리에서 태어나, 14세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했다. 이후 안변 석왕사, 계룡산 대자암, 해인사 용탑선원 등에서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스님은 평생 동안 '인간 방생'을 원으로 세우고 고아 200여 명을 돌보는 한편, 동국대 불교병원과 군법당 불사에 각각 1억원 씩을 쾌척하기도 했다. 스님은 '거짓 없이 살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여수령 기자**

## 명광문화원, 장애아동 돕기 작품 기증



한국불교 태고종 명광문화원 김광식 원장(사진)이 장애우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 달라며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작품을 청주 보현어린이집에 기증했다. 청주 보현어린이집은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가 건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50여 명의 장애우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광식 원장은 "장애를 딛고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꾼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 불교도서관 건립 발원하는 강릉 휴휴암 주지 도호 스님

# "불서 읽기 운동의 작은 불씨 되길"

13년 전 경기도 일산의 한 사찰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교통사고를 연이어 세 차례 당했다. 육체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강릉으로 오게 된 스님은 농가를 얻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2년 후 사찰을 건립하면서 '금강경 목판 불사'를 시작했다. 해인사 대장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열린 경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전 5시에서부터 11시까지 각인 작업을 했다. 손을 베이고 근육이 마비되는 고통도 기도 일념으로 이겨나갔다.

이제 강릉 휴휴암 주지 도호 스님(사진)은 또 다른 불사를 발원한다. 불교도서관 건립이다.

"해인사 장경각을 둘러보면서 세계적 문화유산이 문화적 가치만 있지 원래 목적인 책을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관광객들의 눈요깃감이 아니라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책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한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6000여권이나 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경전 무주상보시로 유명한 대만 재단법인 '불타교육기금회(佛陀教育基金會)'가 2000여권에 달하는 책과 600장의 CD를 기증한 것도 포함돼 있다.

"도서관 불사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이 도착하자 뭘 뜻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6000여권의 책은 대웅전과 요사채 등지에 박스채로 쌓여있다. 마땅히 놓아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산골에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시내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내 도서관은 시내 도서관대로, 산골 도서관은 산골 도서관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도서관이 건립되면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용하기를 원한다. 책은 누구라도 읽어야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건이 되면 불교학자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불교도서관은 이를 위한 하나의 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도서관 불사가 불서 읽기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33)562-7196 **남동우 기자**

## "법회 꾸준히 이어나갈 것"

### 교육인적자원부 인불회 이만희 회장



올해 2월 이만희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교육인적자원부 인불회.

9월 19일 열린 정기법회 현장에서 인불회 이만희 회장(사진)을 만났다. 이 회장은 "아직은 불자회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라 활동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미 매달 서울지역 사찰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강화 전등사와 보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7월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8월에는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9월에는 대각사 주지 장산 스님을 초청해 법석도 열었다.

현재 인불회 회원은 33명. 인원수는 많지않지만 교육부 내의 쟁쟁한 '어른'들이 동참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차관과 인불회 창립을 견인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광조 인적자원정책본부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회장은 "앞으로 좀 더 조직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직장직능 불자회와 연합법회나, 합동 성지순례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 "불교적 인성교육으로 인재 육성"

### 청담정보통신고 안종서 교장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과제는 수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수업에 흥미없고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지 연구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지도입니다. 담임은 물론, 각 교과를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서 불교적 인성교육 심성교육을 통한 학생지도를 할 것입니다."

9월 1일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제7대 교장에 취임한 안종서 교장(사진)은 이 같은 취임일성을 냈다. 신임 안종서 교장은 동국대 종비생 출신 가운데 최초로 불교종립학교 교장직을 맡은 인물. 종비생 15기로 출발해 해군 군법사를 역임하고 불교종립학교인 부산 해동고 교법사와 청담정보통신고 교법사, 교감을 거쳐 올해 9월 교장에 올랐다.

"미군기지에 인접한 학교의 여건상 방과 후 교실에서 미군 10여명이 돌아가며 일주일에 2번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있다"는 안 교장은 "지난해 비즈니스 컨벤션영어과를 신설하는 등 생활영어,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으로 국제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교육도 청담고가 중점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 받아 최고 설비를 갖춘 어학실을 지을 정도로 영어 중국어 전문가 양성 경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안 교장은 "실업계 특별전형을 통해 재학생의 90%가 대학진학에 성공했다"며 평택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진학률이 좋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1974년 혜성 스님이 설립한 청담고는 2000년 IT 컴퓨터 전문의 청담정보통신고로 변신해 경기도에 10여개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종서 교장은 "재학생 학부모 동문 등 우리 청담가족 모두에게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도록 전교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연 기자**

## 공생선원, 고우 스님 초청 법회 봉행



서울 공생선원(원장 무각)은 9월 16일 개원 5주년을 맞아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고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공(空)을 바로 이해하면 사는 것이 날마다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무각 스님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는 공생선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서구복지관 독거노인에 추석 선물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곡) 노인복지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19일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100여 곳을 방문해 송편과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장곡 스님은 "명절이면 더욱 쓸쓸해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복지관과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불교 가르침 가슴으로 전해요"

### 자비명상 전국순회 마친 마가 스님



"사찰 주지스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불교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22곳을 순회하며 '자비명상' 강의를 진행한 마가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스님은 9월 19일 천안 부루나 유치원 강의를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를 마쳤다.

"가는 곳마다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교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강의에서 참가자들에게 3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에 참가자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것이다. 내 이웃이 바로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강의의 핵심.

스님이 자비명상을 착안한 것은 우리민족 속에 내재되 있는 '한'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즉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면 수행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사찰에 오는 불자는 국민의 1%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9%를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명상에 대한 수요는 넘쳐납니다. 자비명상 지도자과정을 통해 내년 20여 곳에 자비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남동우 기자**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0월 15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可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 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





# 템플스테이 브랜드 가치 극대화…열쇠는 절에 多있다

## #1사찰 1브랜드 프로그램 마련해야

"이제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각 사찰에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린 1사찰 1브랜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포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9월 19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 강당에 모인 50여명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들의 눈길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브랜드화 전략' 주제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에게다.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로 스타 강사가 된 스님의 비법이라도 전수받을 태세다.

마가 스님은 브랜드화 전략으로 "사찰의 자연환경과 지역 현황, 신도들의 요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해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마련한 뒤, 사찰과 불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을 체험했다. 옆 자리에 앉은 스님과 마주앉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손을 잡았다. 따뜻하게 상대방을 안기도 했다. 조금은 쑥스러운 듯 겸연쩍어 하는 표정도 지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자비의 미소가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직접 브랜드 프로그램 만들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거주하는 사찰의 특성이나 장점을 기술한 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찰에 찾아오는지, 그들이 사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지 분석했다. 잠시 후 발표시간.

"우리 절에는 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참선 보다는 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좀 느슨하게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 번 불여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찾아가는 길 용문사'.(남해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

"우리 절에는 삶에 지친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주로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지요. 조금 진부할지 몰라도 '하나됨으로 깨어나는 봉인사'로 결정했습니다.(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 #템플스테이는 마케팅의 효과적 수단

조금은 어려운 듯, 조금은 생소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케팅' '고객관리' '인센티브' 등의 단어가 흘러나오자 노트에 받아 적는 모습도 보였다. 유필화 성균관대 GSB 부학장의 '템플스테이 운영과 인력관리' 강의에서다.

"포교는 마케팅이며, 템플스테이는 마케팅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필화 부학장은 포교에서 템플스테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케팅 믹스(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 · 구성하는 일) 네 가지를 분류했다. 제품으로 교리, 가격으로 시주, 유통으로 포교당과 사찰 및 템플스테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법과 서적이 그것이다.

유필화 부학장은 이 가운데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불교가 아무리 수승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타종교에 비해 불교라는 '상품'을 유통시킬 포교당과 사찰 및 템플스테이가 부족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설법이나 서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템플스테이는 불교계의 전략적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는 유필화 부학장은 "템플스테이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은 운영인력의 만족도"라고 정의 내렸다. 즉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성공은 상당부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며, 그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은 △비전 없음 △낮은 임금 △정년 보장 없음 △정신적 · 경제적 인센티브 없음 △사회적 위상 낮음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열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외 △계절성의 존재 등 8고(苦)에 시달리고 있다. 유필화 부학장은 템플스테이 인력문제 해결방안으로 △전문화 △성과측정의 과학화 및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 △계약기간 연장 △복리후생 개선 △자율성 부여 △비전 제시 등을 내놓았다.

## #한류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

"최근 3년간(2004~2006) 템플스테이 참가 사찰은 17.9%, 참가인원은 37.1%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 증가율이 74.1%로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문화관광상품 세계화의 대표 브랜드 역할은 물론 한류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동규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담당관은 '템플스테이 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 강의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템플스테이 사업을 토대로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달라이 라마의 다람살라 수준의 명상센터 건립과 부족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안도 내놓았다.

이어 진행된 질의와 응답은 분위기를 더욱 달궜다. 몇몇 민원성 질문도 있었지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없다"며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산 지장정사 법원 스님은 "캐나다 한 대학은 우리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해 준다"고 소개한 뒤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제선센터 건립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종무담당관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 거점 사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서로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아산=글/사진 남동우 기자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연수 현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개발한 템플스테이 용품.



청결성 요구로 개발된 침구류.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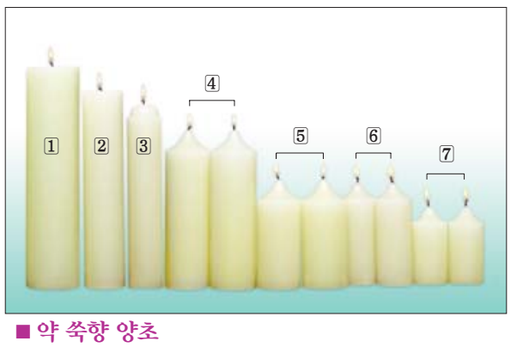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④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2 중생들이 선업을 일으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으로 유루선업을 일으킨다면 끝내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보가 다하면 다시 악한 세계에 떨어지므로 역시 악업으로 귀결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세간의 십악(十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사 유루십선이라 할지라도 이 모두는 악업을 일으키는 견사이혹(見思二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면 세간십선은 당연히 실천해야겠지만 무루계정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체 모든 선업을 간단없이 정진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 진공무아의 이치 관조 의식을 허공처럼 정화하라

다시 '자정기의(自淨其意)' 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부연한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계내의 유루견사번뇌를 끝까지 쓸어내고 일체법은 그 자체가 진공무아의 이치임을 여실하게 관조해야만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구게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모습들은
범소유상(凡所有相)
그것은 모두 허망 분별로 떠오른 모습이라네
개시허망(皆是虛妄)
가령 허망의 모습 실제상 아님을 본다면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시 여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리
즉견여래(卽見如來)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같은 여실한 이치를 알았다면 모든 행동, 마음가짐, 사물에 있어서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된다. 이것이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무루의 가르침이다.[시제불교(是諸佛敎)]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 싶다면
약인욕식불경계(若人欲識佛境界)
그 의식을 허공처럼 정화하라 당정기의여허공(當淨其意如虛空)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무시이래로 번뇌의 때에 오염되었으므로 반드시 무쇠처럼 견고한 마음으로 번뇌를 쓸어 내야만 그 의식을 청정하게 정화했다고 할 수 있다.[자정기의(自淨其意)]

그렇다면 번뇌를 쓸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지관 수행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 란 무엇인가. 바로 '제악막작' 을 말하며 '관' 은 '중선봉행' 이다. 모든 악업을 끊는 것은 열반 사덕(四德)가운데 번뇌를 끊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단덕(斷德)에 해당하고, 선업을 받들어 행한다 함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는 지덕(智德)이며 '지덕' 과 '단덕' 을 병행하면 단덕인 '복' 과 지덕인 '지혜' 가 함께 원만해지는데, 이 둘이 끝까지 원만해지면 그를 여래(如來)라고 부른다. 이 같은 여래께 우리는 항상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이라고 찬탄하며 고개를 숙이고 귀의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제악막작' 등 사구게는 본 지관 법문의 총체적인 강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미하게 연구하여 그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난 뒤에 직접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혹업(惑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이타행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 수많은 수행문, 근원에 도달하면 하나의 길
## 종파 달라도 핵심은 지관이치서 안 벗어나

옛말에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에 오르고, 가까운 데에서 먼 곳에 도달한다" 하였다.

이처럼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닦으며, 이를 통해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며, 더욱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선악을 떠난 중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허공처럼 정화되어 마침내 성불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若夫泥洹眞法 入乃多途 論其急要 不出止觀二法

생사를 벗어나 열반에 드는 방편문이 많기는 하나 그 많은 방편가운데서 '지관' 방편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요점임을 서술하고 있다.

'니원(泥洹)' 은 '열반' 이라고도 음역한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는데 열반은 생사에 대비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할 것은 중생들이 본래 보리열반이며, 원래 청정한 자체이며,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번뇌에 오염된 중생이 되었을까. 실로 그 이유는 내 마음 진여의 이치가 자체 성질만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않고[진여불수자성(眞如不守自性)]최초일념이 망상으로 요동하여 오묘하게 밝은 마음의 이치를 등지고 무명번뇌가 되어 본각(本覺)을 미혹함으로써 무명번뇌에 싸인 불각(不覺)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 마음 진여법신(眞如法身)이 육도의 세계로 생사유전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성품이 태 · 란 · 습 · 화 사생(四生)에 침몰하였다. 이로부터 불생불멸하고 청정하기만 한 자성열반법이 생멸에 오염된 깜깜한 번뇌법이 되어 종일토록 마음이 밖으로 치구하면서 본래 없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여래께서는 지혜의 안목으로 중생이 끝없는 생사의 고통을 간단없이 받는 모습을 관찰하시고 그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생사로부터 벗어나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불생불멸의 열반이 바로 생멸 속에 있으므로 생멸을 떠난 밖에 따로의 열반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니원' 은 바로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이치다.

부처님은 중생을 열반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근기와 습성이 한결같지 않다는 점을 간파하셨다. 때문에 일체수행법문을 중생의 근기 따라 설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수많은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많은 수행길이 있다 해도 최후에 그 근원에 도달하면 그 낱낱의 수행 모두가 불생불멸인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으로 그 목적지를 삼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사천 수행문 그 모두가 궁극에는 열반실상의 이치를 증득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수많은 수행방편문이 있지만 그 근원에 도달하면 두 갈래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였다.

이처럼 모든 종파의 수행이 그 이치에 있어선 지관수행을 떠나지 않고 있건만 단지 각개 종파에 따라 명칭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예를 들면 화엄종에선 법계관을 수행하고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요체를 삼지만[관사법계수보현행(觀四法界修普賢行)]그들이 행하는 수행이 근본적으로 사종법계관을 통해서 번뇌를 그친 자리에서 다시 걸림 없는 보현행으로 지혜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지관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정토종에서 행하는 염불수행도 염불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쉬고 그 자리에서 관찰대상인 서방 아미타부처님이 더욱 분명하게 떠오른다는 점에서 역시 이 지관의 이치를 염불수행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지관' 이야말로 모든 수행인들의 궁극의 목표인 열반과를 증득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기에 "모든 수행이 지관이라는 두 가지 수행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업(業)의 분류 ②

### (3) 인과관계로서의 업

성질에 따른 행위를 다시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인 복업(福業)과 복이 아닌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성질의 행위인 비복업(非福業),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도 움직임이 없는 결과를 부르는 행위인 부동업(不動業)이 있습니다.

첫째 '복업' 은 일상생활에서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착한 성질의 행위에 해당하는 십선업(十善業) 등으로 행하면 이는 인간이나 천상의 복스러운 결과를 부르므로 이를 '복을 부르는 행위' 라고 합니다.

둘째 '비복업' 은 복업과는 반대로 우리의 행위를 악한 성질인 십악업(十惡業)으로 행하면 지옥 · 아귀 · 축생의 과보를 받거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므로 이런 경우엔 '복스럽지 못한 행위' 라고 합니다.

셋째 '부동업' 은 십선업 이외에 다시 지관법(止觀法)수행을 닦아 이를 통해 색계나 무색계에

### 선정의 경지 부르는 행위인 부동업
### 훗날 과보 받지않는 무기업과 달라

서 사선팔정(四禪八定)의 과보를 받으면 복과 복 아님,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선정의 경지를 '고락(苦樂)에 흔들림이 없는 행위'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했던 '무기업' 과 '부동업' 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기업' 은 선업이나 악업과는 달리 훗날의 과보를 받지 않으므로 인과론적인 삼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단지 불러들인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측면에서 '부동업' 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 (4)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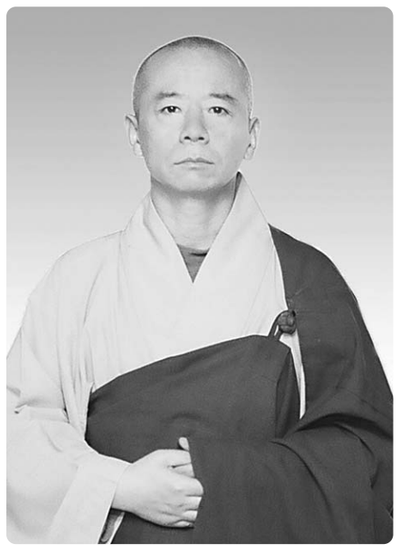
우리가 지은 행위에 따른 인과관계를 다시 시간적으로 고찰했을 때, 그것을 다시 현수업(現受業), 생수업(生受業), 후수업(後受業) 등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삼시업(三時業)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수업' 은 현세에서 업을 짓고 목전에서 바로 받는, 즉 금생에 짓고 금생이 끝나기 이전에 그 대가를 치르는 측면에서 이를 현생에 받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수업' 은 금생에 행위를 짓고 그에 상응하는 과보는 다음 생에 받는 행위를 말하며 끝으로 '후수업' 은 전전 생에 했던 행위의 과보를 후후 다생이 지난 뒤에야 받는, 즉 어느 시기에 과보를 받을지 아직 미정인 상태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張如舟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 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선지식을 찾아서

주경



주경 스님 (강릉 성원사 회주)

더위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9월, 서울 종로구 도심 포교당 아미타사는 아미타불교대학을 개강하며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열었다. 산 속에 있다 오랜만에 도심으로 나온 스님은 서울의 답답한 공기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문이 시작되자 스님은 불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법어들을 토해 냈다. 20여평 남짓 비좁은 공간에 꽉 들어찬 100여 불자들이 내뿜는 숨과 체온 때문에 법당의 실내 공기는 탁하고 후덥지근했지만, 스님이 내뱉는 맑고 청아한 언어들은 불자들 마음을 서늘하고 시원하게 식혀 주었다.

#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업 소멸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입만 떼면 업(業)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업을 소멸하거나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이란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도 드문데 말이지요.

자 그러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왜 이리 전생에 지은 업이 많은 것일까?" "업장이 얼마나 두텁길래 이리도 일이 안풀리는 것일까" 등과 같은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업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業)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시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 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思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꺼 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작위업(作爲業)'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行爲業)'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지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날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그리고 거룩하거나 천박하게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아란 실재하지 않지만 물질과 비물질의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운동의 저변에 잠재된 업력의 흐름 때문에 생사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고통이나 그 조건(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체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작업인 수행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른 노력, 마음 집중, 마음 챙김으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싫다, 좋다' 하는 분별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량 · 분별심이 약화되면 될 수록 욕망의 사슬도 느슨해지고 행동반경도 그만큼 자유스러워져,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일어나는 순간 바로 죄 되는 것**
**노력과 체험 통해 자신을 이해해야 깨달아**
**'싫다 · 좋다' 하는 분별 의식 가져서는 안돼**

화내고 욕심내고 한 이 마음의 부스러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무아미타불'을 수만 번 염송하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염불을 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 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극락입니다.

또한 1초가 다시 1초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염불 삼매의 경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만독, 20만독을 하는 것보다 지성으로 1초를 호명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집에서 밥 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한마음으로 염불을 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금강같이 단단해 집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칭명 염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마음속으로 칭명을 하는 것도 염불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놓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1만번씩만 해 보십시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염불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할 것이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불 공덕도 쌓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주경 스님은** 1942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태안사 청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태안사 정중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했다. 현재 청화사상 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무주불교 문화재단 설립이사장, 법무부 교화위원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스님은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사미승을 초청해 스님이 만든 국제선원 무문관을 통해 한국불교와 수행법, 한국문화 등을 직접 지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전강 스님(1)

## 만공, 어느 것이 자네별인가
## 전강, (땅에 엎드려 별을 찾는 시늉을 한다)
## 만공, 옳다, 옳다!

만공(滿空, 1871~1946) 선사가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샛별(啓明星)'을 보고 오도(悟道)하셨다는데, 저 하늘에 가득한 별 중 어느 것이 자네의 별인가?"

그러자, 전강 스님은 곧 땅에 엎드려 허우적허우적 더듬으며 별을 찾는 시늉을 하였다.



만공 선사는 그것을 보고,

"옳다, 옳다(善哉 善哉)!"하며 인가하였다.

23세에 태안사에서 개오한 전강 스님은 만공, 혜봉, 혜월, 용성, 한암 스님 등을 찾아가 점검을 받았다. 특히 만공 스님으로부터는 마조 스님의 '원상(圓相) 화두'로 점검을 받고 인가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전법게를 받았다.

"불조가 일찍이 전하지 못한 것(佛祖未曾傳)/ 나 또한 얻은 것 없네(我亦無所得)/ 이 날은 가을빛도 저물어 가는데(此日秋色暮)/ 뒷산 봉우리에 원숭이 울음소리(猿嘯在後峰)."

이 게송에서 '불조도 일찍이 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원상(圓相)이자 '한 물건(一物)'이다. 이와 관련,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옛 부처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가도 몰랐거니 어찌 가섭이 전하랴. 이 한 물건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별 찾는 공안은 전강 스님이 인가를 받고 며칠 지난 날 밤에 벌어진 선문답이다.

만공 스님은 시험 삼아 "어느 것이 자네의 별인가?" 하고 물었지만, 전강 스님의 별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부처님이 보았던 별과 전강 스님이 본 별이 같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선문염송>에는 이런 게송이 보인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지만(因星見悟)/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悟罷非星)/ 사물을 따르지도 않거니와(不逐於物)/ 무정물도 아니라네(不是無情)."

부처님이 별로 인해서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은 별이 아니라, 한마음(一心)이요 도(道)라는 게송이다. 이는 마치 서산 대사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은 '꼬끼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여자성(眞如自性)이었던 것과 같다.

**주객이 하나될 때 깨달음 일어나**

**깨닫는 것은 '별'이 아니라 '一心'**

'물건을 따르지도 않고 무정물도 아니다'고 한 것은 깨달음의 성품이 목석(木石)과 같지 않아서 신묘하게 안다는 뜻이다. 자성의 묘함은 미혹과 깨달음에 속하지 않고 시절인연 속에서 늘 밝게 드러나 있다는 의미다.

깨달음은 별이라는 객관 대상과 보는 주관이 하나 될 때 일어난다. 주객이 일체가 된 각성(覺性)에서 볼 때, 별이 마음 밖에 따로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무슨 별을 따로 찾을 것이 있겠는가.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혜암 스님이 "만약 만공 스님이 나한테 위 법문을 물으신다면 '스님은 어느 곳에서 제 별을 보셨습니까?' 라고 여쭈리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을 암시하고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 "모든 관념은 오직 스스로의 인식일 뿐"


각성 스님

## 각성 스님 20년 만에 '여래심지 요문' 강의

"제법(諸法)은 환상(幻)과 같고 꿈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아지랑이 · 건달바성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일체법은 오직 자심(自心)을 분별한 것임을!"<대승입능가경>

<능가경>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선종을 전할 때 가져온 경전이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 대사에게 4권본 <능가경>을 주면서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속고승전>"라고 했을 정도로 선종의 심요(心要)가 담긴 경이다.

이후 5조 홍인, 6조 혜능 대사 때부터 복잡하고 난해한 <능가경>이 <금강경>으로 대체되면서 관심도가 약해졌지만, 달마 대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경이다. '토끼 뿔'이니, '거북 털'이니, '돌 여인'이니 하는 격외어(格外語)의 출전이기도 한 <능가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로서 선 수행자들의 필독서인 까닭이다.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교(敎)에 의지하여 선의 종지를 깨닫는다(藉敎悟宗)'고 하는 달마선의 소의경전인 <능가경>에 대한 강의가 드물게 열렸다. 조계종의 대강백인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이 김천 김용사에서 <능가경>을 강의한 지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이번 법회는 공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서울전문강당동문회 선교연구모임(운영위원장 법경)이 주관한 이번 강좌에는 법랍 15년 이상의 중진스님과 재가학자 · 수행자 등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능가경> 강의를 통해 교선일치(敎禪一致)의 순선(純禪)을 공부하게 된다.

이날 삼귀의, 반야심경, 법경 스님의 인사말,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축사 등으로 이어진 입제식이 끝나자, 각성 스님이 스님들의 공부 열기를 찬탄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 대사에게 선법을 전할 때 '<능가경>과 <금강경>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4조 도신 대사 때까지 이 경을 수지하고 다니면서 선종의 심요(心要)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행의 근원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선과 <능가경>의 밀접한 관계로 초기의 선종은 능가종(楞伽宗)이라고까지 불리워졌다. 하지만 유식(唯識)을 알아야만 이해가 될 정도로 난해한 까닭에 5조 홍인 대사 때부터는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럼에도 <능가경>은 <화엄경><법화경><능엄경><원각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승(一乘)경전으로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승 논(論) 중의 왕으로 꼽히는 마명 보살의 <대승기신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승경전 100권의 핵심을 망라한 <대승기신론>의 소의경전을 <능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능가경>이란 뽕잎을 먹고 <기신론>이라는 비단이 탄생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8만 대장경이 있지만, 달마 대사는 '나의 마음을 알려면 <능가경>만 보면 된다'고 했을 정도이니 그 중요성을 알만하다. 각성 스님은 "어려운 <능가경>을 요달하면 다른 경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능가경>의 여래장(如來藏: 부처가 될 씨앗)사상과 아뢰야식사상이 <대승기신론>과 선종의 사상적 근원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여래장이란 불성의 다른 말로서,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혀 있으면서도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부터 청정하여 변함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말한다. 선종의 '견성성불론'이 여래장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어 각성 스님은 8가지 마음의 작용(八識:안 · 이 · 비 · 설 · 신 · 의 6식과 제7 말나식, 제8 아뢰야식)을 설하고, 세 가지 자성(自性) 즉 변계소집성(망상으로 이뤄진 것, 妄有) · 의타기성(인연이 만나 일어나는 것, 假有) · 원성실성(진여인 불성자리, 實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능가경>이 강조하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음의 근원은 무한한 과거로부터 쌓아 온 습기(習氣)로 인해 모든 것이 오직 자기 마음의 드러난 바임을 알지 못하고 일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 의식의 본성이며, 이것을 철저하게 안다면 주 · 객관의 모든 대립을 벗어나 무분별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법문이다.

이러한 도리를 각성 스님은 이렇게 강조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의 골자가 <능가경>의 '삼계유심 만법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대상이 오직 인식일 뿐)'이란 구절에 담겨있습니다."

결국 <능가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이념과 분별의식이 '오직 각자의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唯自心所現)'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쉽게 상대적인 관념에 치우쳐서 분별심을 내므로, 이를 벗어나야만 열반 즉, 고통의 소멸과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참선 등을 통해 분별심이나 들뜬 마음을 안정시켜야만 바른 지혜가 나타나서 진실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능가경>의 심지법문인 것이다.

현수법장 대사의 <입능가심현의(入楞伽心玄義)>를 교재로 한 이번 강좌는, 선종의 소의경전임에도 <금강경>에 비해 소외되었던 <능가경>의 유심(唯心)이며 일심(一心)인 선지(禪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02)735-1053

김성우 객원기자


대강백 각성 스님이 20년 만에 <능가경>을 강의하자 승 · 속을 막론하고 경청하고 있다.

### 수행게시판

● **청암사 · 수도암 성지순례**=서울 금강선원은 10월 19일 오전 6시 30분 김천 청암사, 수도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445-8484

● **'전등록' 강좌**=경전연구회는 매주 셋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옥수동 대승암에서 칠불사 통광 스님을 초청, 역대 선사의 법어가 담긴 〈전등록〉 강좌를 연다. (011)420-7838

● **'유마경' 강의**=부산불교교육대학은 10월 2일부터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9시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을 초청, '불이법문(不二法門)'의 근본경인 〈유마경〉 강좌를 연다. (051)711-0700

● **3000배 용맹정진**=법왕정사는 9월 29일 오후 9시에서 30일 오전 7시까지 분당 하안마음선원에서 3000배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02)456-0035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옥돌침대
흙 침 대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 “깨달음 통해 삶의 성장 이뤄야”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㉝ 대학생들이 말하는 ‘인생’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 마음도 성숙하길 바라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한다.

### 인생은 논술

인생은 논술 문제처럼 주어진 답이 없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인생을 써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들의 생각에 따라 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글을 써내려가는 기준은 있다. 자유롭되 지킬 것은 지키는 인생,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 인생은 와인

인생은 와인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이 많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면서 삶은 점점 풍부해진다. 오래된 와인처럼 나도 늙을수록 깊고 지혜로워지고 싶다.

### 인생은 꿈을 이루는 것

인생을 고통이라고 한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므로. 그러나 손 놓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겪는 고통을 이겨낸다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행복일 것이다. 노력과 고생이 크다 해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기쁨이고 보람이다.

### 인생은 결심

인생은 우리 각자의 결심에 달려있다. 대학생인 우리에게 길은 여러 가지가 열려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그려가는 그림이 인생살이다.

### 인생은 배움

인생은 배움이다. 공부만이 배움의 전부가 아니다. 매일 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이다. 전철 안의 잡상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이고 구두만 닦는 구두닦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다.

### 인생은 마음공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은 자기 마음이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능력, 외모, 부, 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역량만큼 세상을 섭수하고 삶 속에서 지혜를 찾게 되고 행복을 느껴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다.

### 종교는 삶 속에 있는 것

“세상에 태어나서 살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종교이다”라는 말씀처럼 불자의 깨달음도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고 오늘의 실천 속에서 피어나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 신행게시판

●**월정사 오대산 불교문화축전**=평창 월정사가 10월 5~7일 제4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이어 산사음악회-공생과 희망이 오후 6시 30분부터 월정사를 음악으로 수놓는다. 자장 율사 개산다례재, 어린이 불교동요배우기 및 경연대회, 불교합창단 찬불가 경연대회,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및 헌다례, 전통불교문화공연, 월정사 탑돌이, 제1회 전국승가학인 법고대회, 마임이스트 유진규의 ‘강원의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이 5일 마련되어 있다. 6일에는 오대산 비로봉 등반대회, 제3회 오대산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 옛길따라 숲속 여행, 지역놀이 한마당, 산사의 재즈의 만남, 산사 영화제 등이, 7일에는 제4회 문화관광부장관상 청소년 백일장 대회 및 사생대회, 오대산 천년의 숲의 명상적 가치에 대한 심포지엄, 청소년 어울마당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033)332-6661

●**제8회 장군산 예술제(구절초 꽃 축제)**=공주 영평사가 ‘구절초 꽃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마련한다. 9월 29일 개막하는 제8회 장군산 예술제는 구절초 꽃축제로 더 유명하다.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사음악회가 영평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감싼다. 30일에는 영평사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한다. 10월 6일에는 공주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잔치도 준비한다. 7일 · 13일에는 7080 작은음악회를, 14일에는 청소년 1000여명이 모여 중앙절 놀이 행사와 구절초 화전부치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하는 청소년 마당이 청소년들을 반긴다. 이 외에도 10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기간 동안, 구절초사진 전시회, 구절초 무료시음회,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041)857-1854

●**조계사 창건 97주년 맞이 ‘십보일배’ 고행정진**=서울 조계사가 창건 97주년을 맞아 ‘성역화불사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십보일배 고행정진’을 봉행한다. ‘십보일배 고행정진’은 10월 3~5일 설악산 영시암에서 적멸보궁이 모셔져 있는 봉정암까지 ‘십보일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십보일배를 통해 조계사는 민족자존 및 불교의 미래와 문화창달을 염원했던 창건 당시 선사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동참금은 10만원. 숙식 및 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02)732-2187

●**범어사 선문화 축제**=부산 범어사가 10월 12~14일 ‘개산 1329년 선문화축제-행복참선으로의 초대’를 봉행한다. 불자대상을 수상한 탤런트 강부자씨가 출연하는 ‘행복불자가족 참선법회’를 시작으로 법요식, 박범신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명사초청 행복불자강연’ 등으로 이어진다.
합창제, 산사가족음악회, 불무도 체험, 한국전래문화체험, 범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가족사랑 명상걷기대회, 의상 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다비식, 사찰선차 다과체험, 각종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 (051)508-3122

●**통도사 금강산 성지순례**=양산 통도사가 10월 31일~11월 2일 금강산 성지순례를 떠난다. 내금강의 불교 문화유적과 풍광을 접할 수 있는 성지순례이다. 첫날 신계사 참배 후 둘째날 구룡연 · 만물상 · 삼일포 또는 해금강 코스 관광이 기다리고 있다. 법기암터 참배 후 교예단의 흥겨운 기예도 관람할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10월 11일까지. 동참비용은 55만원이다. (055)382-7182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0>

### 정신분석과 불교-10

## 잠재적 정신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開悟’
## 禪·정신분석 공통점 ‘무의식→의식화 작업’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禪)불교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 즉 인간의 분리성 · 고독성 · 무력성 등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은 견딜 수 없도록 무거운 짐이어서 그 압박 때문에 인간은 산산이 찢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거나 우상에 의존하거나 자기애적인 보상적 기제에 의해, 즉 불구가 됨으로써 이런 결과를 회피하는 데 불과하다고 했다.

즉 인간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누구나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라는 것이다. 프롬은 이러한 인간이 잠재적인 정신 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계에 대한 충실한 생산적 반응이며, 그 최선의 형태는 개오(開悟)라고 말했다.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의 외면적인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는 욕망의 극복이다. 즉 선의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조건은 소유욕이나 명예욕 등 어떤 형태의 욕망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며, 정신분석에서도 탐욕적이고 잔학하고 인색한 지향성에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지향성으로 발전되어 감으로써 건전한 품격을 가꾸어 나간다.

둘째는 권위로부터의 독립이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비판했다. 그 주요 이유는 종교의 본질이 본래 도움을 받거나 벌을 받던 부친에게 의존하는 대신에게 의존하려는 미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도 없고 어떤 형태의 비합리적 권위도 없는 종교다. 불교의 주요 목적은 바로 인간을 모든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자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스승이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목적에 달성하게끔 이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환자가 분석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획득하는 지점까지 안내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영혼을 구제해 줄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이 자기를 구제할 수 있다. 선불교에서도 정신분석에서도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선에서는 화두를 주어 수행자가 인습적인 사고 속으로 도피하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신분석가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한다. 분석가는 환자가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을 때까지 환자의 자기 합리화를 하나하나 빼앗아 결국에는 환자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허구를 깨뜨리고 실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비교하면서 프롬은 선과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파악, 나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 자각, 즉 ‘우주적 개오’인 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억압상태의 극복, 본능(id)을 자아(ego)로 대치시키는 것, 즉 ‘인간 개체 내의 개오’라고 했다.



그림 : 문병성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한강 시민공원여의도지구에서는**
'2007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월 13일 열린다. 한국 · 일본 · 미국 3개국의 불꽃쇼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라디오 공개방송과 더불어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 시청 녹음광장에서는**
'내사랑 부산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행복한 부산, 우리가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 대회는 10월 13일 열리며, 초등학생에서 일반인까지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참가 신청은 미리 해야 한다. (051)888-2171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 가례전'이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세자빈 면복과 왕세자 면복 등 재현 복식 49점이 전시되고 혼인예식 절차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조선시대 의복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시.(02)3704-3114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사이언스 터널 특별전'이 펼쳐진다. 태초, 나노, 생물, 감각, 미래, 우주라는 6개의 큰 영역으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는 은하수의 형성과정, 블랙홀이 행성을 이탈시키는 과정, 거대한 태양이 폭풍이 치는 모습, 직립보행의 이점, 시간과 공간의 한계, 현대와 미래의 기술 등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참조.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소리, 몸짓'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린다. 희귀한 판소리 음반 청음, 명창들의 공연은 물론이고 어린이 소리판, 개그 판소리 등의 재미있는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063)287-65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밤 따고 고구마 캐며 동심도 영글어요

## 가을 '수확체험' 떠나보세요~



과수원도 보고 사과도 따고 온가족 가을나들이로 제격이다.



몇 알 남지않은 벼를 털어내고 새끼꼬기를 체험하는 아이들.

"앗 따가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김포로 나온 영중이(서울 잠원동 · 11)는 무심코 밤송이를 만졌다 가시에 찔렸다. 벌어진 밤송이 사이로 보이는 알밤을 얼른 꺼내려다 생각보다 뾰족한 가시에 놀랐다. 밤송이의 가시를 실제로 찔려보고 나니 생소하고 아프기는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영중이는 밤송이를 따로 싸들고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가을 들판이 물들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햇살 속에서 알알이 영글고 있는 곡식들이 춤춘다. 시골길은 이미 '황금물결'이다. 온갖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요즘은 사시사철 먹을 것이 많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원하는 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영근이네 가족처럼 가까운 근교로 떠나 '수확(收穫)'이 무엇인지 몸소 느껴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열매가 어떻게 익어가고 그것들을 얻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수확체험도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쉽고 편한 시대에 사는 대신, 옛 사람들이 느꼈던 소소한 일상적 체험들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직접 따는 과일, 들에서 직접 훑어보는 벼이삭의 느낌은 세상의 어떤 커다란 시장에도 없다. 자연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연 속에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감정적 경험, 한 번쯤 해볼 만하다.

### □ 지역 축제 즐겨보세요

역시, '밤' 하면 충남 공주, 공주 하면 밤이다. 공주시에서는 매년 **'공주알밤축제'**를 연다. 올해는 10월 14일이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이며 '고소! 달콤! 오도독! 공주알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밤나무 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밤송이를 발로 비비며 밤을 줍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겹다.

알밤축제에서는 알밤 줍기 체험 외에도 알밤 왕 선발, 알밤 굽기, 밤 음식전시 및 시식회, 알밤 전시 및 품평회, 알밤 깎기 대회, 밤송이멀리던지기, 밤 던져넣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밤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공주시청 041-840-2818)

이에 앞서 또 하나의 밤 축제가 있다. 바로 9월 30일에 진행되는 **'충주 밤 축제'**다. 공주가 전통적인 밤 생산지로 유명하다면 충주는 전국 최고의 재배기술로 생산된 충주 밤을 자랑한다. 밤나무는 그냥 크는 것이 아니냐고? 이는 충주 밤 축제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부심을 갖고 밤나무 재배기술을 직접 볼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장소는 충주시 소태초등학교 교정이다. 가족명랑운동회에서 밤 풍선 만들기, 코뿔소 달리기, 우리가족만세 등의 6종 경기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 밤 비교 전시회, 우수 밤 품평회전시, 바람개비 만들기, 밤 양초 만들기 체험 등 비교적 전문화된 밤 축제를 즐길 수 있다.(충주시 산림녹지과 043-850-5814)

대추는 처음부터 쪼글쪼글하고 검붉은 색깔이었을까? 대추가 마치 사과처럼 아삭한 단맛이 나는 열매라면? **논산 연산**에서 펼쳐지는 **대추축제**에서 확인해보자. 가을햇살에 잘 익은 대추 맛도 볼 수 있다. 10월 5~6일 연산 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에서는 비단 대추 따기뿐만 아니라 대추 공예, 대추 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까지 즐길 수 있다. 또 다양한 대추 먹거리도 준비된다. 풍물놀이, 콘서트 등은 덤이다.

가을의 정취에서 사과향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펼쳐지는 **'문경 사과축제'**에서 달콤한 사과 향을 느껴보자. 기간도 10월 12~21일로 다른 축제에 비해 여유 있다. 또 그저 사과 따기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축제 성격인 점도 타 축제와 다른 점이다. 행사기간 중 사과발전세미나 · 품평회 · 전시회 등 학술 행사가 펼쳐진다. 또 문경 시인들을 주축으로 '시와 사과와 사람과의 만남', 어린이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을 진행하며 가을 시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가족건강 걷기대회 새재가요제 등도 운영된다. (문경시청 054-550-6254)

### □ 찾아보면 수확체험 학습 많아요

이런 굵직한 지역 행사 외에도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많다. 특히 수도권 인근인 김포 · 용인 · 일산 등지에는 벼 베기, 고구마 캐기 등을 하루 코스로 할 수 있는 수목원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마을단위로 이뤄지는 행사가 많으므로 일정과 인원,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수확체험 장소를 물색해 각자 찾는 것이 좋다.

캠프나라 김병진 팀장은 "수확체험은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효과가 높아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통해 농작물에 들어간 정성을 느끼면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사진=캠프나라 제공

**참고 사이트**
한국청소년캠프협회
www.icamp.or.kr
수확체험 나들이
www.nadri.or.kr
팜 스테이
www.farmstay.co.kr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사계절 단화 —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 —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특·무명 —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 —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풍산동 99% —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발볼조절가능 / 건강슬리퍼 — 바이오실리콘 / 쪼극예사 (방수원단) / 풍산동 99%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 풍산동 99% —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을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햇감자가 나오면 동네 어린이들은 각담에 모여 앉아 감자 먹는 준비를 하기도 했지요. 주변의 관솔가지를 긁어모아 감자를 구워 먹다보면 입 주변에 숯검정이 묻어 얼굴이 엉망이 되어도 즐거웠지요. 햇무리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이른 봄 소소리바람이 불 때도 논밭을 다니며 논둑 밭둑 태우는 냄새를 맡고 다니기도 했지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자연이 다 놀이터였던 행복한 시절이었죠.

**숯검정** : 검정은 검은 빛 또는 검은 물감을 뜻하는데 앞에 ‘숯’이 붙어 숯의 그을음을 뜻함.

**햇무리** :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햇물과 같은말.(삿갓구름과 햇무리를 보고 비가 오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얼굴들이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각담** : 논밭의 돌이나 풀 따위를 추려 한쪽에 나지막이 쌓아 놓은 무더기.

**소소리바람** :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 굵은 눈이 내리고, 소소리바람이 부는데,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관솔** :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불이 잘 붙으므로 예전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 등불 대신 이용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파스칼 作 ‘팡세’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수학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의 생애는 크게 과학자로서의 생애와 사교인 세속적 인간으로 생애, 그리고 철학과 신학을 겸비한 생애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오베르느의 클레르몽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파리에 온 그는 16세에 <원추 곡선론>을 발표하여 아르키메데스 이래의 큰 업적이라고 학계의 칭찬을 받았지요. 아버지가 살고 있던 루앙시에서는 계산기의 발명과 기체의 압력에 관한 여러 가지의 실험을 거쳐 수압의 원리 및 기압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또 확률론을 창시하여 미적분의 선구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어요.

1654년 장세니즘 신앙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로와이엘 수도원과 관계를 맺었어요. 두 번의 회심을 하는데 1차는 22세 때 빙판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의사에 감명을 받아 했고 두 번째 회심은 31세인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사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종교인 파스칼이 됩니다. 인류의 영원한 고전 <팡세>는 파스칼의 비망록이라 여겨집니다. 심혼을 기울여 메모한 것을 남겨놓은 단상집이거든요.

전 924장의 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70년 초판 된 이래 종교를 떠나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팡세>가 사랑받는 이유는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무한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근원적 문제들, 인간 존재의 모순이나 인간의 허무한 삶을 조명하여 시대가 변해도 관심을 끄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숙제를 풀려고 한 책이나 미완성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파스칼이 죽은 뒤 폴 로와이얄의 친구에 의하여 편찬 출판된 것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파본들이 편찬되고 있어요.

### 단상집, 전 924장으로 구성
### 프랑스 사상에 가장 큰 영향

파스칼 자신이 구상했다고 여겨지는 구성에 따르면 그 내용은 대체로 2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전반에서는 ‘신을 갖지 못한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말했으며, 후반에서는 ‘신과 같이 걸어가는 인간의 행복’을 말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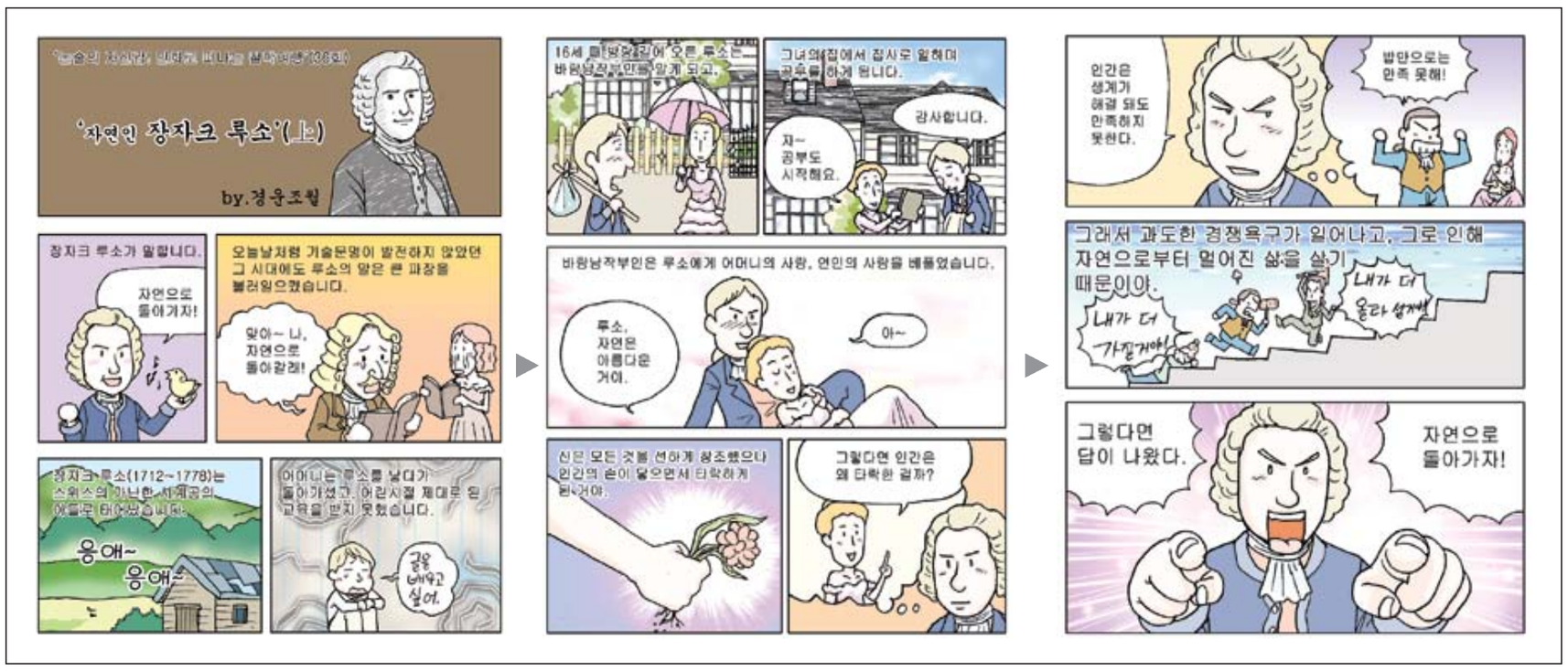
전반부에서 공허, 허영심, 비참, 권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는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의 정신’의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말한다고 그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기하학적 정신’은 논리에 의하여 증명하고 결론한다고 했고, ‘섬세의 정신’은 직관에 의하여 원리와 질서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섬세한 정신은 내면적이고 원리적인 감동의 세계요 정서적 세계를 말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 낮았더라면 지구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고쳤더라면 그러나 약점을 고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면서도 그런대로 위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지요.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섬세하고 연약한 갈대 말이에요. 그러나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고하는 갈대”(347장)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어 본 말이죠? 사고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들은 인간의 위대함과 또 비참함과의 불가사의한 모순에 놀라는 것이지요. 파스칼은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철학자의 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589장에서부터 600장까지는 전 세계의 여러 종교에 대하여 언급하고 마호메트교를 비롯한 그 외의 다른 종교들이 혹은 과오에 빠졌거나, 미망에 휩쓸렸거나, 이론적 모순에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팡세>는 17세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고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인 인간, 우주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우리 인간들, 신이나 종교를 떠나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팡세입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잠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2학기 때는 성적을 좀 올려보고 싶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공부하다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남들은 잠이 보약이라는데, 전 원수 같아요.(ID: 잠팅~)

### 깨어있는 시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잠 때문에 걱정이 많군요. 특히 성장기에는 누구나 잠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잠을 줄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나 부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잠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무조건 잠부터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허비하는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우선 자신의 잠자는 시간부터 점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깊게 그리고 개운하게 자는지도 확인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지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자는지도 알아야겠죠.
이 때, 잠을 자는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한번 자면 피로가 풀릴 정도로 푹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잠을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인 수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면을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활들도 계획성 있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10분씩 뒤로 미룬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10분씩 당기는 방법으로 천천히 수면의 양을 줄입니다. 8시간씩 잠을 자던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5시간씩 잘 수는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잠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서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은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 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닥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스님특급정보

#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목 통증**

## 글로코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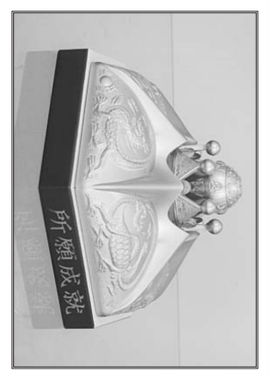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문의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慶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慶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慶방 051)865-9933

전도 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慶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요으로 변합니다.

깨침의 세계 드러내 보이는

# 웅숭깊은 '격외언어'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라**
글 이상철 사진 이상엽
이른아침 펴냄 | 1만 2천원

당신은 어떤 유언(遺言)을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다투지 말고 잘 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짚신장수처럼 세상살이의 노하우를 전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사회에 재산을 헌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염원하는 숭고한 멘트를 남길 것인가. 어떤 경우가 됐건 유언은 글로 남기는 게 일반적이다. 동영상이나 녹취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흔한 예는 아니다. 글로 남기는 유언은 다분히 서술적이거나 훈계조거나 간곡한 서간체다.

유언을 시로 남긴다면? 압축과 다중의 의미부여, 촌철살인의 기지로 보여주는 깨달음의 세계…. 선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선시의 형태로 유언을 남기는 것, 바로 열반송(涅槃頌)이다. 임종게라고도 한다. 임종을 앞두고 읊는 게송이란 의미다. 주로 선사들의 열반송이 많이 전하는데 한마디 한 구절이 갖는 오도의 세계는 무한하다.

그냥 자유시가 아니라 선시의 형태로 유언을 남기려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연해야 가능할지 범부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수행자들은 죽음조차 한 구절의 시로 연출해내는 멋쟁이들인 것이다. 선사들의 열반송은 '무엇'을 남겨주는 유언이 아니라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장엄한 법문이다. 그래서 상식 밖의 묘사도 서슴지 않는다. 격외성(格外性)이 활발하고 웅숭(도량이 넓고 큼)깊다.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지옥의 찌꺼기만 만들고 가네.*
*내 뼈와 살은 저 숲 속에 버려두어*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라.*

16세기를 풍미한 희언(熙彦) 스님의 열반송이다. 오고 감의 질서가 본래 없음을 드러내는 지고한 가르침이다. 현대의 고승 성철(性澈) 스님의 열반송도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로 시작된다. 물론 한 생의 살림살이가 공(空)임을 가르친다.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라>는 공부꾼 이상철씨가 65명의 고승들이 남긴 열반송을 묶은 것이다. 열반송과 고승의 행적 · 일화 그리고 어려운 용어 풀이까지 곁들여져 있다. 열반송을 무던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감한 장치들을 한 것이다. 이 책은 서산 대사나 함허득통 등 조선의 걸승들에서 근현대 큰스님들의 열반송을 새록새록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맛이 있는데 이상엽 작가의 사진들도 '언어 밖의 언어'로 열반송의 가르침을 북돋워 준다. 고승들의 열반송 그 마지막 노래는 살아 있는 자들을 향한 죽은 자의 자비다. 임연태 기자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정갈한 언어로 간절히 가르치는 '禪'



"아!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들과 어찌 이다지도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예전 사람의 배움에 그 뜻을 두고 대장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글로 보배를 삼았습니다."

440여 년 전, 청허당 서산 대사의 탄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니, 서산 대사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다면 그 염려는 오히려 더 깊을지도 모르겠다. 떠도는 글과 말이 그때에 비해 훨씬 많고 통속적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1564년에 서산 대사가 <선가귀감>의 서문을 쓸 때나 지금이나 '귀감'이 되는 가르침의 요체는 변함이 없다.



**선가귀감**
서산대사 지음
원순 스님 역해
법공양 펴냄 | 1만5000원

긴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조계종 기본선원의 교선사(敎禪師, 어록 등을 강의 하는 스승) 원순 스님(사진)이 <선가귀감>을 번역한 간절심 또한 넘쳐나는 언어의 너울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이끌어 줄 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다.

원순 스님의 언어는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강요하지 않고 혼돈스럽게 하지 않는다. 서산 대사의 원문이 대장경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금싸라기라면 원순 스님의 번역은 그 금싸라기의 '절차탁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염결성이 돋보이는 문장으로 <선가귀감>을 풀이 한 것이다.

내용이 쏙쏙 전달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정갈해야 한다. 원순 스님이 번역한 <선가귀감>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정갈한 문장에 스민 간절한 가르침인 것이다. 총 81장으로 묶이 나눠져 있으며 '선 수행의 길잡이'란 부제가 설명하듯, 선 공부하는 이들에게 훈습의 길을 펼쳐 보인다.

원순 스님은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열린선원에서 10월 10일부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 오후 1시 <선가귀감>을 강의한다.(02)722-0633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부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는 것



**이계진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글 이계진, 그림 한인현
동쪽나라 펴냄 | 9000원

30여년간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불자정치인 이계진씨가 쓴 에세이집이다. 이 책에는 합창의 화음이 깨질까봐 참다못해 공연 중에 오줌을 싸버린 소년, 텔레비전을 켜 놓고 그 불빛으로 저녁을 먹는다는 어느 시골 노인 등 소박한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는 특히 대학을 포기한 초보 택시 기사가 지도를 펼쳐가며 길을 찾는 모습에서 진실한 자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만, 노력하는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부끄러움을 덮고도 모자라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흔히 "잘 산다"라고들 대답하는데, 이 말에는 부자로 산다는 뜻과 사람답게 또는 아름답게 산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풀어 놓은뒤 궁극적으로 후자가 목표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시골서 돼지 키우는 친구를 예로 들며 "이 친구는 이 세상 여러 직업 가운데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언제나 웃으며 희망에 살고 특히 아주 행복한 얼굴로 산다"고 소개한다.

이계진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가고 그것을 또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다.

김주일 기자

# 할머니 밥상이 바로 '웰빙'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권오분 지음
마음의 숲 펴냄 | 9,800원

들꽃과 관련된 글을 써 '들꽃 아줌마'로 알려진 저자가 옛날 밥상 이야기로 책을 엮었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해준 음식, 시골에서 먹던 음식, 외롭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음식,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재래시장에서 파는 음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이 책은 식물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 가서 곰취나 곤달비 같은 나물을 뜯어오고, 서울 자택 뒤뜰에 겨자무 · 신선초 · 쑥갓 · 왕고들빼기 같은 채소를 길러서, 요리해 먹으며 나이 들어간 내력을 적은 것이다. 저자의 생각이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잡숫던 대로 먹으면 절대 살이 찌거나 아프지 않는다"는 게 그녀의 소신이다.

이 책에는 자신이 가꾼 채소들에 대한 단상도 들어 있다. 가령 아픈 언니를 위해 골목 자투리 땅에 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은 뒤 권씨는 이렇게 썼다. "가만히 채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어린 생명들이 색채의 마술사처럼 느껴진다. 언니를 위하여 만든 작은 밭이 커다란 숲이 주는 것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자신이 가꾼 야채숲(?)을 좋아하는 저자는 외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분위기가 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집에서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어느 유명한 주방장보다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 법구경에도 '일화'가 있네



**법구경 인연담**
정태혁 엮고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2800원

'고귀한 사람과 만나면 좋고 그를 섬기는 것은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 여의면 항상 안락함을 얻나니.' (법구경 중에서)

<법구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잘 알려진 부처님의 금언집이다. <법구경>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판본이 여럿 전해지는데, 그간 국내에서 읽힌 책들은 대부분이 게송을 모으고 주해를 단 것들이어서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음미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팔리어 판본을 기준으로 삼고 <출요경>(법구비유경) 등을 참고해 <법구경>의 게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일화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담없이 꺼내 읽기 좋게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 최만희 편저 | 운주사 |
| 3 | 답답하면 물어라 | 법륜 | 정토 |
| 4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름미디어 |
| 5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화로운 삶 |
| 6 | 선요 | 전재강 역주 | 운주사 |
| 7 |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 툽텐 초드론 | 미디어 윌 |
| 8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 청견 | 붓다의 마을 |
| 9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 과경 | 불광출판부 |
| 10 |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 앙리 브뤼넬 | 솔바람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산28-3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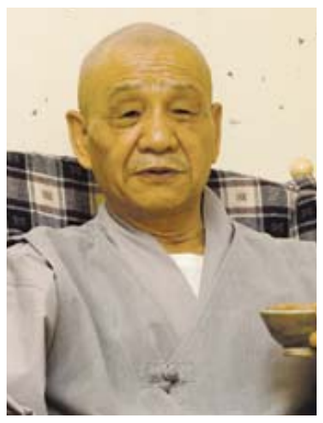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10월 서울 서울법회는
10월 7일(日) 열립니다.
10월부터 법회장소가 사당에서 도봉으로 변경됩니다.
*서울선원 ☎ 02-3494-0122(매월 첫째 일요일)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매월 넷째 일요일)
반야심경/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관자재요양병원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개원법회 및 산사음악회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정토사관자재회(정토마을)에서는 의료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관자재요양병원 건립에 앞서 교계 최초 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 및 인성개발을 담당할 교육원 '마하보디센터' 건립을 추진 2007년 9월 완공하여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과 교계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전국의 후원가족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개원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마하보디센터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님 및 단체를 비롯 전국의 후원가족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사랑으로 일군 값진 결실도 둘러보시고 행복의 기쁨도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能行 합장
◆일시 : 2007년 10월 7일(음 8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관자재교육관 마하보디센터
Ⅰ부. 개 원 법 회 (오전 10시)
•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 축사 및 격려사 (각계 내빈)
• 감사패 수여 등
Ⅱ부. 산사음악회 (오후 12시 30분)
• 정토가족 노래자랑
• 초대가수 축하공연
(한혜진, 안치환, 이유진 외 다수)

■ 주 최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 주 관 : 마하보디센터 [울산지원]
■ 후 원 : 관자재총신도회, 아미타호스피스 총동문회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043)298-2258
관자재요양병원, 마하보디센터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052)264-1007

# 오현 스님 '아득한 성자'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와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치수)가 선정한 3/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올해 정지용문학상수상작가인 시조시인 오현(사진 · 백담사회주)스님의 <아득한 성자(시학)> 등 52종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집에는 철원출신 원로시인 민영씨의 <방울새에게(실천문학사)>도 선정됐고 소설집에는 홍천출신 박양호 교수(전남대)의 <마음의 오쟐타기(문학나무)>가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문학작품집에는 강릉출신 권영상씨의 <둥글이 누나(사계절)>와 춘천출신 송언씨의 <멋지다 썩은 떡(문학동네)>이, 평론집에는 강원대교수인 문학평론가 신철하교수의 <미완의 시대와 문학>도 선정에 들었다.

선정된 우수문학도서는 권당 2,000부(평론은 1,000부)를 문학나눔사업으로 구입,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교정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내진다. 책이 필요한 시설은 문학나눔사업추진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or-munhak.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주일 기자

# 석굴암 변천사 한눈에 본다



## 일제시대 해체·복원 과정 담은 유리원판 사진展

### 12월19일까지 성균관대 박물관서

일제시대 석굴암과 불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균관대학교박물관(관장 송재소)이 12월 19일까지 기획한 특별전 '경주 신라 유적의 어제와 오늘-석굴암 불국사 남산'에 가면 그 의문점이 풀릴 것 같다. 이번 전시에서는 1900년대 초반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 200여점이 공개된다.

이 중에는 1913년 경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석굴암 1차 해체 복원과정 사진 12점과 1925년 다보탑 수리모습 사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석굴암 사진 12점은 당시 석굴암 해체와 복원과정을 '활동사진' 처럼 연속적으로 보여줘 해체복원 과정은 물론 전후사정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는 이 중 5장만이 공개돼 정확한 과정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석굴암 해체과정의 사진은 석굴암 돔을 덮었던 흙과 기와, 내부의 환기구 모습 등 석굴암의 초기 구조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진을 통해 석굴암 전실(前室)은 1964년 보수 수리 과정에서 일제가 꺾어 놓은 굴절형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박물관측은 밝혔다. 하지만 꺾어 놓은 것이 원형인지, 펼쳐 놓은 것이 원형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제시대 석굴암 복원과정에서 본존불을 제외한 모든 초석이 교체된 사실도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면 알 수 있다.

1960년대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 석굴암의 모습을 한 눈에 조망하도록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석굴암 내부를 실물의 70% 크기 모형으로 제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외에 경주 남산의 모습을 담은 유리원판 사진 60점도 처음으로 복원, 공개된다.

송재소 박물관장은 "1912년 일제에 의해 석굴암이 해체복원과정에서 훼손되는 실상과 1925년 다보탑 수리과정이 담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주 남산의 경우 문화재 반출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한 덕분에 7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문화재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유리원판은 경주에서 경주에서 동양헌(東洋軒)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하던 '다나카'라는 민간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1925년 다보탑과 남산 사진 등은 당시 총독부 박물관장을 하던 후지타 료오사쿠(藤田亮策)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02)760-1216

김주일 · 여수령 기자

# 가을밤 물들이는 전통악기의 향연

## ●영월 법흥사 등 산사음악회



고즈넉한 가을 산사에서 은은한 풍경소리, 쏟아지는 별빛 그리고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사음악회가 마련된다.

강원 영월 법흥사(033-374-9177)는 10월 19일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법흥사가 올해 처음 마련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10월 18~21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음악회에는 인도, 중국, 일본의 전통 현악기 연주자들이 출연하고 달라이 라마의 평화메시지도 상영된다.

출연진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화려하다. 국악연주단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을 비롯해 인도 퓨전 재즈 연주가 '바르가브 미스트리', 중국의 전통 현악기인 얼후 연주가 '케니웬'과 '민후이펀', 한국에 잘 알려진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사진) 등이 1부의 무대를 꾸민다.

이어 LMB싱어즈가 찬불가를, 탈북여성 5인조 그룹인 '달래음악단'과 인기가수 설운도씨와 장윤정씨가 신나는 트로트를 선사한다.

강원 평창 오대산 월정사(033-332-6664)도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산사음악회를 연다. 월정사는 산사음악회 외에도 10월 5~7일 불교문화축전을 열어 재즈음악회, 영산재, 불교사물시연, 산사영화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

충남 공주 영평사(041-857-1854)는 9월 29일~10월 21일 열리는 '구절초 꽃 축제'의 하나로 29일 연정국악원, 안치환씨 등이 출연하는 가운데 산사음악회를 연다. 축제 기간 중에는 사진 전시회, 꽃차 시음회, 천연비누 만들기 행사도 마련된다.

김주일 기자

## 노래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10월3일 장흥 영산법화사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세계평화불사리탑앞에서 부처님일대기가 노래로 울려퍼진다.

영산법화종(법주 행산)은 10월 3일 오전 11시 장흥 영산법화사에서 '세계평화불사리탑 건립회향법회 및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에 연주될 곡은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1992년에 작곡한 교성곡 '붓다의 노래'다. 법안정사 회주 효경 스님이 노랫말을 쓴 이 곡은 부처님 일대기를 10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여기에 정부기 교수가 국악과 양악기가 어우러진 웅장한 스케일의 교성곡을 만들어 당시로서는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곡은 1992년 예술의 전당 초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국내 유명 연주장에서 수 차례 연주되면서 국내 찬불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정부기 교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규모를 축소해 바라오페라단과 연합합창단이 노래를, 기본 악기 편성으로 구성된 신디사이저가 반주를 맡아 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㉓

## 화왕산 삼성암

장인성 시인

청매실 조롱조롱 매단 봄길을
목이 쉰 소쩍새의 울음과 함께
도란도란 걸어가는 화왕산 그늘

솔잎이 모여서 바람공양 올리고
들꽃이 모여서 빛깔공양 올리고
새들이 모여서 소리공양 올리고

큰스님 한가로이 담밑에 앉아
싸리꽃 피는 소리 엿듣고 있다.



삼성암(三聖庵)-창녕 화왕산 삼성암 드는 마을에는 청매실이 빼곡하고 산문에 들어서면 싸리꽃구름을 피워 올라서 그 조화로움이 마치 선계와 욕계를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진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0일(토요일)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9월 1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0일 (음, 9월 10일)
- 3재 : 양력 11월 3일(음, 9월 2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1일 (음, 10월 2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www.sungjongsa.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여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짜위치와 실제 당짜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짜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의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법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 17. 염화시중의 미소

부자가 함께 모일 큰 자리를 벌이고
抛他祖父大家筵
꽃가지 든 것을 바른 전법으로 삼았네
拈出花枝作正傳
피해 입은 후손들이 몹시도 가난해서
帶累兒孫貧到骨
할미의 옷 빌려 입고 할미에게 세배하네
借婆裙去拜婆年
–열재거사 (〈선문염송〉 5칙 '염화미소')

선의 근원을 말할 때 자연 석가모니께서 마음을 전한 세 곳의 이야기, 곧 다자탑전 반분좌와 염화시중의 미소, 사라쌍수하 곽시쌍부를 일컫는다.

인류의 정신 유산 중 가장 미묘한 선은 한 송이의 연꽃과 한 번의 미소에서 탄생되었다. 삼처전심 중 오직 염화시중 미소만이 출처가 분명하지 못하나, 얼마나 낭만이 있고 멋스럽고 아름다운가는 이야기를 접해 본 사람이면 바로 직감하게 된다. 선의 멋은 선화가 정말이냐 거짓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염화시중의 미소가, 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면서 만들어졌다 해도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삼처전심 중 '염화시중 미소'만이 출처 불명**
**선화의 진위여부 떠나 禪의 핵심 표현 '의의'**

선의 정곡을 찌른 이야기다.

위의 게송 1행에서 '부자가 함께 모일 대연회를 베푼다'는 인위적이 아니어서 마침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어서 석가모니와 가섭이 베푼 이 연회는 인류를 위한 세세연연(世世緣緣) 이어지는 연회다. 이 연회장은 천하에 눈 있는 자들이 뛰어 노는 곳이다. 현금의 정리된 단어로는 공(空), 도(道), 진리, 필드(field), 화엄법계, 양자물리학의 통일장(統一場)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연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은 이곳은 진수성찬과 가무음주가 끝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2행의 '연꽃을 들어 보임, 그저 연꽃을 들어 보였지. 전법은 무슨 전법, 여기 몰록 들어가야지 무얼 또 사량하는가!' 이리하여 3행에 '피해 입은 후손 몹시도 가난하여'란 말은, 본래 있던 이 대연희장을 특별한 장소인양 알고 찾아 헤맨 후손들, 뼈저리게 마지막 공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몹시도 가난'이란 말은 '정녕 더 버릴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니, 공부가 근저(根底)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4행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다. 바로 가난 자체가 된 선시적 수사법상 사물에 선시의 무한 실상을 지칭한 것이니, 곧 선가에서 계합이니, 노호불허회(老胡不許會) 등의 선어로 말하는 부분이다. '할미의 옷 빌려 입고 할미에게 세배하네(借婆裙去拜婆年)'라는 4행이야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이언절려(離言絶慮)의 소식이다.

〈금강경〉제17 '구경무아분' 경문에 대하여 야보 도천(冶父道川)은 게송으로 뜻을 밝혔는데, 위의 게송 4행과 같이 읽힌다. '야보송'을 분석하여 보면 자연 이 게송의 마지막 행이 드러난다.

소라고 부르면 곧 소요, 말이라 부르면 바로 말이다 喚牛卽牛 呼馬卽馬
노파의 적삼을 빌려서 노파의 문 앞에 걸어둔다 借婆杉子拜婆門
예의의 차림은 이것으로 넘친다
禮數周旋已十分
대 그림자 댓돌을 빗질해도 먼지 하나일지 않는다. 竹影掃階塵不動
달은 연못을 뚫어도 수면에 흔적 하나 없다
月穿潭底水無痕

그렇다. 아무리 소를 부르고 말을 부르고 모든 이름을 부른다 해도 알맞지 않을 뿐,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곧 맞지 않다. 또 마음이다 진리다 공이다 해도, 마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공이 아님이 분명하니 그냥 일물(一物)이라 해도 일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진리 당처와 만난다 할 때는 이미 주객이 분리된 이해 차원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위의 게송 4행과 같이 '피해 입은 후손들이 몹시도 가난해서/할미의 옷 빌려 입고 할미에게 세배하네(帶累兒孫貧到骨 借婆裙去拜婆年)'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수사법이야말로 선시의 모순적 어법이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⑰

**삼베옷을 입은 자화상**
조용미| 문학과 지성사,2004| 6천원





## 존재의 내면을 향한 깊은 응시

조용미는 1962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90년 〈한길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삼베옷을 입은 자화상〉은 그의 세 번째 시집이다. 그의 시집에서 불교 어휘를 빈번하게 만날 수 있다. 많은 절을 순례한 흔적이 시에 보인다.

시 '적막이라는 이름의 절'에서는 '적막이라는 이름의 절에 닿으려면 오랜 기다림과 설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적막을 통과하고 나야 '꽃과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한다. '불멸'에서 화자는 사나사 석탑 옆에 쓰러져 있는 반송을 보고 '반송은 제 광기를 다스리지 못했거나 태풍이 제 광기를 절 마당의 소나무에게 물어 보았다'고 한다.

'바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에서는 개태사에서 만난 '뿌리째 뽑혀 쓰러진' 향나무를 보며 바람의 근원을 생각한다. '두웅 습지'에서 화자는 두웅 습지를 화엄세계, 연화장 세계라고 한다.

화자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웅얼거리며 서 있다가 '범패와 법음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다. 인취사에서 만난 파초의 꽃을 등으로 비유한 '파초등'에서는 '파초가 절집 마당에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저렇게 한 송이의 등을 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라며 사람들의 무지를 두들겨 깨운다. 시인은 이렇게 절을 헤매다가 어느 별밤에 무진등을 만난다.

별은 무진등이다
다함이 없는 등불,
꺼지지 않는 무진등

내 안에 다함이 없는 등불
꺼지지 않는 무진등이 하나 있다

숨겨놓은 말들에
하나씩 불을 켠다
내 몸은
그 등불의 심지다 – '무진등' 전문

무진등은 한 개의 등불로 수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이고, 한 사람의 법으로 백 천 사람을 교화하여도 다함이 없는 데 비유한다. 1연에서는 별을 무진등으로 비유한다. 2연에서는 무진등을 내면화 하고, 3연에서는 말들에 불을 켠다며 추상어인 말을 감각화 한다. 4연에서는 화자의 몸이 등불의 심지로 비유되고 있다. 이 시 전체 대의는 사람이 바로 무진등이라는 말이다.

다른 시 '거울 속의 산'에서는 마주선 사람의 업보를 보여 준다는 '업경대'를 핵심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경대가 화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청동 거울의 뒷면'에서도 '업경대를 들여다보듯 천천히 동경을 들어' '청동거울 안의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

'매월당'에서는 '성주산 어귀 골짜기마다 깊숙이 꽃을 감추고 있는 화장골 지나 꽃고개 너머/ 몸 안에 사리를 감추고 살았던 매월당 만나러' 무량사에 가기도 한다.

개심사 입구 세심동에
끓는 물속에 담가진 얼음처럼
몸이 녹아내렸다

뜨거운 찻잔 속에서도 나는
아주 녹지 않는 얼음이었다

아기부처가 그려진 현등이 꿈결인 듯
먼 행성처럼 빛을 내뿜고 있는
밤의 정수사

내가 얼음의 몸을 가졌음을
뜨거운 물속에서야 알 수 있게 되었다

꽃잎들이 나비무 바라무를 추며
허공을 내려오는 봄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 ⑰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꿀 버무리

'호박 같은 얼굴'이라는 말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듣기 좋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속담에서 보듯, 호박은 겉으로는 촌스러워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 풍부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호박은 다른 채소에 비해 기후조건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호박은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애호박은 주로 나물이나 전, 찌게 등의 음식으로 먹고 늙은 호박은 떡, 엿, 범벅, 죽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호박잎은 쪄서 쌈으로 먹기도 하지요. 호박은 전분질이 많아 주식 대신 먹어도 좋으며 칼로리가 고구마의 절반 정도여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알맞습니다.

**영양 풍부 호박은 식·약용으로 널리 애용**
**옥수수수염은 붓기 완화·혈압강하에 효과**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늙은 호박에 옥수수수염을 넣은 꿀 버무리입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옥수수수염 속에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의 주성분은 지방유 2.5% 정유 0.12% 교질 3.8% 수지 2.7% 배당체 1.15% 사포닌 3.18% 알칼로이드 0.05%등 입니다. 이 밖에도 크립토잔틴(cryptoxanthin), 비타민 C, 판토텐산, 이노시톨(inositol), 비타민 K, 레몬산 등의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안덕균씨가 쓴 〈한국본초도감〉에서는 "옥수수수염은 생약명으로 옥미수(玉米鬚)라고 한다. 이수소종, 통림, 청간담습열의 효능이 있어 신우신염으로 몸이 부었을 때 물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대변을 볼 때 동통을 참을 수 없을 때,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고혈압에서 혈압 강하 작용을 나타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옥수수수염만을 달이거나 댑싸리 또는 질경이 씨와 섞어 달여서 콩팥염, 부기, 방광염에 먹거나 옥수수수염 가루를 식초로 반죽하여 아물지 않는 상처에 붙여 썼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에는 옥수수수염 30그램을 삶아 자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화자도 매일 옥수수수염 40그램을 삶아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각혈, 토혈, 축농증, 원발성 고혈압, 늑막염 등에도 옥수수수염을 달인 물을 마시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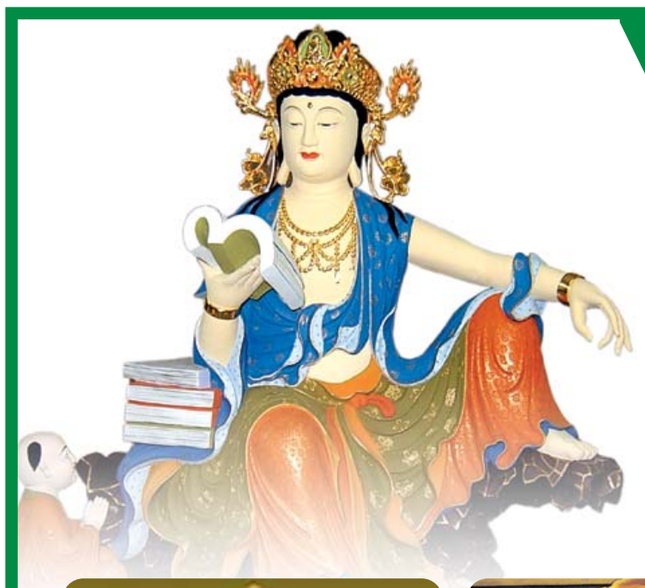
**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꿀 버무리**

**재료 : 옥수수수염, 늙은 호박, 인삼, 구기자, 꿀**

만드는 법

① 구기자는 따뜻한 물에 불려서 푹 삶아 꿀물을 달게 타서 식힌다.
② 늙은 호박은 뜨거운 물에 데쳐낸 다음 식혀둔다.
③ 인삼은 채 썰어서 둔다.
④ 옥수수수염은 찬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살린 다음 4~5cm 길이로 썰어둔다.
⑤ 준비된 재료를 골고루 섞어 버무려 그릇에 담아 낸다.


#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서울 강동구
011-445-9549
기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제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집전하여
드립니다
<수시접수>
011-9837-8668
원명사 주지 심산스님합장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솔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명리학, 육효, 수강생 모집**
용 덕 사
(명리배우면서
절 살림 도우실
여자분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051)506-4038

**秘 法 전 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오셔서 좋은 인연 맺으소서-
1. 삼흔칠백의 작용법(확실한 천도)
2. 악손이 되는 비법(氣)(즉석효험)
3. 도인침술 비법(정신병 빙의) 선택
4. 7日만에 도인되는 비법(독소배출,직관력)
5. 체면학,레이키,기공,빙의제령(귀신) 영상법등 영통한 강의
-교재에 의한 각1시간 강의 총 6시간(1시간체험)-
*스님께서 직강, 시원스럽습니다. *보시료 약간
-초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
연락처 010-3189-3525
해용사 -법경-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41)673-23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염불" 전문스님입니다**
산수 수려한 명산에서
기도(부전) 원합니다
054)433-6315
010-4520-67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5세 이상) ▷서울 정릉
02)917-336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5323-7706

**남해안가 사찰로써**
휴양이나 기도하며 지낼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남 고성군
055)672-5179
010-7157-5179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비구스님)
041)836-50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010-7225-2537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법당
거사님 또는
보살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불자부부입니다. 수행하며 정말 맛있는 된장, 천식에 좋은 '무' 엿을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할 서울 근교나 경기도 지역 작은 암자 인연 기다립니다. (역학가능) 또는 빈집 무보시로 빌려주시면 부처님 마음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010-4761-3030

**기도하면서 지내실**
노부부 모십니다
기도하실스님,
스님하실 행자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전근교
(비구니스님 기도도량)
011-435-2572

조계종 고려고찰 내원암에서 마음의 고통을 쉬고 업병도 치유할 수 있는 영험있는 곳에서 가족의 소원있는 분, 기도하면서 식구도 없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40~50대 공양주 구함
(경북 내원암 지장보궁)
054)653-1180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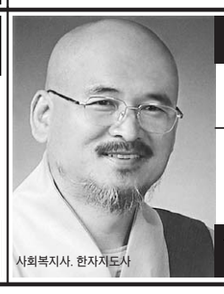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행 자 구 함**
내가 사는 절은 대중과 항상 접하는 도심 사찰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지 않습니까?
입산해서 수행하는 것도 인생일대의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 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와 결단을 내리십시오.
● 입산자격 : 만 18세 - 43세, 독신남자 (고등이나 동등한 자격)
054)452-0845/011-539-0845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바라,작법무,화청,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뇌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지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3개월 완성 ●속성반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행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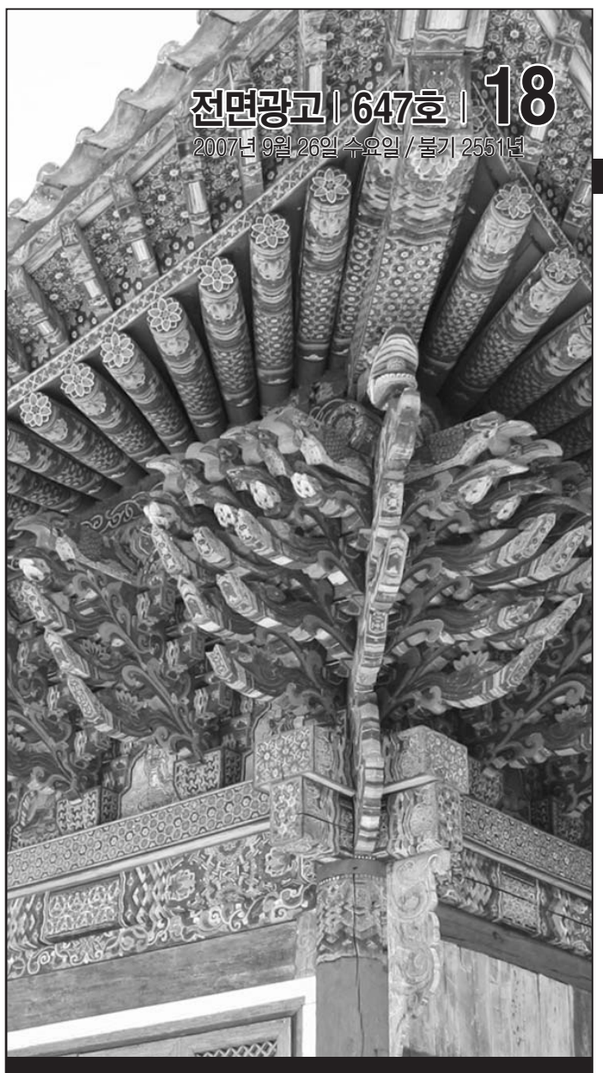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복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왜 왔는가? ②어떤 정황인간? ③형이상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당면운세 판단 ⑤띠별 나이별 길흉 ⑥묻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 대금 : 250만원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I·II·III 과 교환접수합니다.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80년생)
- 부지 : 95평, 건물(신축) 4층
  3층 법당(30평)
  2층 주지스님 방 및 집무실(30평)
- 요사채 (30평),산신각 (15평)
  아파트 및 빌라촌
- 가액 : 3억8천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법당 : 99㎡(30평)
- 요사 : 165㎡(50평)
- 납골 : 200기 완공
- 부지 : 10,000㎡(3,0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강원 동해
- 법당 : 82㎡(25)목
- 요사 : 217㎡(66)목
- 부지 : 891㎡(270)
- 가액 : 4억(급양도)

- 위치 : 강원 해안도시
- 법당 : 90㎡(27평)
- 요사 : 36㎡(10외20평)
- 부지 : 1,179㎡(357평)
- 가액 : 3억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포 교 원 안 내

포교원 및 경전연구실 최적지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송정 중심가
  (부산-울산 25m 국도변)
- 용도 : 상업지(1, 2층 주차장 완비)
- 부지 : 122㎡(37평)
- 가액 : 1억5천만원(융자 3천만원 있음)

011-582-0029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광명시 소하동 (서울 시흥대교 지나 바로 앞)
- 평수 70평 4층 건물중 4층,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스님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564-6669

##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땅 591평
- 법당 21평(조립식)
- 요사채 26평(조립식)
- 화장실 3개, 방3개
- 가액 : 1억 2천5백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
  (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신축 건물(3년)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지하수 및 수도시설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 대지 : 25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 20평
- 화장실 3칸외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요망

010-9333-8472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 사 찰 안 내

- 위치 : 단양
- 대지 : 270평
- 요사채 : 50평
- 법당 : 30평
- 가액 : 1억 6백만원

010-9959-1026

##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 가액 : 4200만원
- 법사님,보살님,비구니,
  노스님적합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 몸만오시면됨

010-9235-9318

## 인천지역 포교원 안내

- 건물 37평(계단, 화장실,
  주차공간 제한평수)
- 3층 신건물, 2층 전체사용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佛), 영가단
- 사무실, 접견실 겸 공양실,
  주방, 에어컨 2대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주차시설완비

010-6261-6117
진공스님

## 포 교 원 안 내

공찰주지소임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무료 보시하겠음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역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 포 교 당 안 내
(임대도 가능)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 120평
- 법당(삼존불 모셔져 있음)
- 시설 : 요사채(부엌, 방5)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016-525-0324

## 명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1년내내 기도객이 끊어지지
  않는 명산토굴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7-407-0021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요사채, 법당 갖춰짐(슬라브)
- 가액 : 2억
- 국유지 5년 분할조건 계약하여
  불하받는중에 2년 상환함(78.8평)
- 25년 된 사찰(명당터)

051)633-1630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

011-568-4417

##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550평, 공유지 500여평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2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 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포교와 노후생활에 최적지
- 가액 : 2억9천5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4층 건물중 3층
  포교원 90평
-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4877-5900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427㎡(약140평)
- 블럭주택 20평(거실, 부엌, 방3)
- 전원주택 적지(정원 잔디밭)
- 현지까지 진입로 포장완비
- 가액 : 4천5백만원

016-533-5100

##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884-7767

##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33)257-7124

## 명당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5억 7천만원

011-9477-0375
(주인직접)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대지 150평
- 요사채(슬라브) 45평
- 산신, 후불, 칠성, 신장,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집기류 일체
- 가액: 1억 5천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56-0612

## 천하명당 절터

- 위치 : 경남 하동 화개
- 대지 : 6,804㎡(2100평)
- 건평 : 535㎡(165평)
  총 6채(한옥)
- 가액 : 20억

010-2870-3330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 각 탱화, 미륵동불
  모든시설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문경새재부근
- 2천평 중 종교부지 800평
  (대형사찰)
  대웅전 외 부속건물 7채(목조)
- 계곡 연못 있으며, 전면이 확 트임
- 가액 : 7억원 (전세가능)

010-6399-5311

## 일반주택(임법당) 안내

- 위치 : 진주시내에서
  의령방향 10분 이내
- 대지 : 648㎡(200평)
- 집 두채(한채는 창고 겸함)
- 방 3개 : 임법당 1개, 방2개
- 가액 : 적정 금액 양도

017-587-7193

## 대구 시내권 사찰 구함

- 주소는 대구시로
  되어 있으면서
  변두리 산쪽에
  자리잡은 사찰구함

011-509-0124(벽송)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284-0737

## 사 찰 안 내

황토방을 사찰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위치 : 위치 :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 799-1, 799-2
  광주에서 20분 거리
- 면적 : 실평수 약600여평
- 법당 포함 건축물 7동
  (합계 120평)
- 공부상 면적 : 대지 365평,
  건축면적 59평
- 가액 : 3억5천만원
  (급양도 가격절충가능)

011-9609-3316
011-609-1106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2억5천만원

010-9115-6831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 120평
- 시골 흙집(황토)
- 건평 28평(정남향)
- 가구, 전자제품일체
  석가모니 부처님
- 진입로까지 포장완료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천5백만원

010-3161-1613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법당 : (실평수) 65평(2층)
  시설 특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8-632-2009

## 사 찰 중 계

- 위치 : 경기 동남부
- 부지 : 3500평
- 가액 : 7억
- 부지 : 1천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 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급안내)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최고 도량 양도

- 지리산동부능선700미터 웅장한 일자혈 전망
- 계곡소나무기암의 임야15000평 대지1000여평
- 현대식요사채3동 통유리 벽난로 황토선방
  무문관수행위한 4개독립선실 전기도로 완비
- 양도가는 방문후 결정

연락처 010-4650-5730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경북권)

석불 · 석탑 · 석등 ·
석조각품 · 석물공사

(중국 직수입, 제작공급)

- 사찰법률상담, 재테크 전문상담

011-822-8000

##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7-373-5998

2. 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6739-6426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보살, 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 사 찰 안 내

(사정상 급 안내함)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저수지
  인근 구룡산 줄기
- 총평수 : 648㎡(200평)
- 법당 45평, 공양간 45평, 마당, 지하수(청정수)
  큰 은행나무, 감나무
- 특징 : 스님 수행 토굴 및 도심연계 선방 또는
  마음 수련장으로 최적지임
- 가액 : 9천7백만원 (건물, 대지,
  사찰운영물품 일체 포함한 양도가격)

016-401-6254

##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5천만원(융 9700만 있음)

## 신축중에 있는 암자

- 대지 : 30평, 건평 40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7-501-2315



# 음식·마음 나누는 아름다운 한가위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한가위는 그 어떤 명절보다 음식과 정이 넘친다. 하지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명절이 더욱 쓸쓸하기만 하다. 불교계 복지관들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불자 가정에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어보자.

"어르신, 맛있는 떡 드세요."

불교계 노인복지관들은 지역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추석선물과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의료봉사 등을 펼쳐 한가위의 의미를 더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9월 15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지역 저소득 장애인 150여 명에게 약물처방 및 양·한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9월 9일 서부라이온스클럽 의료진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은평구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에 달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다. 의료진은 정형외과, 치과, 한방 등 총 200건의 진료를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을 살폈다. 또한 20일에는 지역 독거노인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가위 합동차례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차례를 지낸 후 한가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건강을 기원했다.

**의정부 선재동자원**(원장 지산)은 9월 16일 자원봉사자 500여 명과 함께 송편을 빚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소속 운암청년단 회원 30여 명도 동참해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송호식)은 9월 20일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가정 40여 곳을 방문해 떡과 모듬전, 한과, 과일 등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21일에는 송산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과 송편 빚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하며 한가위 기분을 만끽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9월 19일 KT 사랑의봉사단과 한국전력공사,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송편과 후원물품을 마련해, 광진구 내 독거노인가정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쌀과 후원물품, 후원금을 모아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산하 15개 시설은 '사랑의 쌀 모으기'를 진행,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100여 세대에게 쌀과 송편 등 추석 물품을 전달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033-653-6375)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051-893-5034), **옥수종합사회복지관**(02-2282-1102) 등도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모금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복지관들은 20~22일 사이 합동차례 및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해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 불교계 복지관들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지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불교사회단체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의료봉사와 추석물품 전달, 송편나누기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강북장애인복지관과 반갑다연우야가 함께 진행한 무료진료(사진 위)와 의정부 선재동자원 봉사자들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송편을 빚는 모습.(사진 아래) .

한편, **서울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박재근)은 외국인 노동자 껴안기에 나섰다. 9월 16일 외국인 노동자 쉼터인 안산 보문선원을 방문한 반야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고려대학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료봉사를 펼치는 한편, 쉼터를 청소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추석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추석 이후에도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과일이나 쌀, 한과 같은 음식이 많이 남았다면 푸드뱅크에 연락해보자. **푸드뱅크**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자쉼터 등에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 밥이나 떡, 면류를 비롯해 반찬과 음료, 과자, 과일 등의 간식, 곡류나 야채, 기타 식재료 등 무엇이나 기탁할 수 있다. 단, 조리한지 오래됐거나 먹던 음식은 기탁할 수 없다. 전국 어디서나 1688-1377을 누르면 지역의 푸드뱅크로 연결된다.

양말이나 수건, 생필품 등의 선물세트도 꼭 필요한 곳에서는 소중하게 쓰여진다. 근처 지역 복지관이나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내복이나 옷, 이불 등을 필요로 하므로 적절한 곳에 물품을 기탁한다. 시설에 기증하는 물건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적당하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한두 번이라도 사용했던 물품이라면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도록 한다. 전국 50여 개의 아름다운가게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수선, 수리를 거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전화(1577-1113)나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를 통해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찾을 수 있다.

여수령 · 김강진 기자



건강 칼럼 column

### 4. 스트레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오히려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는 주부들에게 '명절병'이라고 부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우울해진다.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가,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새 학기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가을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나, 내부에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자극 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만성적으로 불안상태를 일으키는 모든 자극을 통틀어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활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충격으로 작용하고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스트레스는 크게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외적 자극이란 주위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극,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일상의 복잡한 일 등 감정적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 및 사고 또는 신체적 과로 등을 말한다. 내적 자극이란 불충분한 잠, 과중한 스케줄에 대한 부담감, 자신 혹평, 부정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기대, 본능 등을 포함한 모든 생체 내부의 생리적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외적 또는 내적 자극을 감당할 능력이 약화되거나 결핍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자극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칠정과다(七情過多)' 혹은 '칠정손상(七情損傷)'이라 말한다. 칠정이란 사람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기쁨·분노·근심·생각·슬픔·공포·놀람(喜怒憂思悲恐驚)이다. 이 일곱 가지 감정 중 한두 가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기(氣)의 편향을 초래해 육체적인 병까지 일으킨다고 본다. 그러므로 치료 또한 오장육부를 편하게 해주고 신체의 평형, 정신의 평형을 이루게 해주고 평상지심을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 만성화 되면 정서적 불안 일으키고 신체 장애
### 규칙적인 생활·원만한 대인 관계 습관 지녀야

환자의 체질을 먼저 파악하고 한의학의 경락 이론을 응용하여 응결된 기(氣)나 화(火)를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한약을 통해 인체 내 상하기의 교류를 촉진시켜 기와 혈의 기능을 활발히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시켜 준다. 각 개인의 체질적 특성과 정서, 환경적 차이에 따라 변증하여 치료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간단한 스트레스 예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건전한 생활 리듬 유지 △자기 분수에 맞는 취미생활, 오락, 스포츠 등으로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인격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인 관계 갖기 △주인의식을 갖고 즐겁고 충실하려는 노력과 습관 갖기 등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하고 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묵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감 사 합 니 다

軍佛教 후원을 위한
"행복한 빈손" 출판기념법회
奉行에 대한 인사말씀

지난 9월 13일 군불교 발전을 위한 군종교구장의 "행복한 빈손" 출판기념법회가 먼길을 마다 않고 찾아주신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덕분으로 원만회향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불교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교구장과 군승일동은 군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 2551년 9월



군 종 교 구 장 일 면
일면스님 문도회 대표 일 관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육군대장 김병관
군 불 교 후 원 회 장 정인악 드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전화 02)749-8646 홈페이지 http://www.gunindra.com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6) 조계산 선암사

# 화려하고 다양한 식생 '자연의 진언'


선암사 숲길.


등골나무.


붉나무꽃.


뿔잠자리.


싸리꽃.

순천은 호남정맥이 남해에 이르러 머문 곳이다. 특히 총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있는 옛 승주땅은 남도에서 가장 깊은 산간이다. 월출산, 무등산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산의 하나인 조계산(884m)이 그 산간에 우뚝하다. 그 산 동쪽 기슭에 선암사(仙巖寺)가 있고, 서쪽 기슭에 송광사(松廣寺)가 있다.

조계산(曹溪山)이라는 지명은 고려 보조 국사 지눌이 송광사에서 선풍을 드날리면서 새로 지어진 이름이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선암사에 화재가 잦자, 이를 산강수약(山强水弱)한 지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한때 이름자에 물 '水'자가 둘씩이나 들어간 원래 이름인 '청량산(淸凉山)'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암사는 진평왕 3년(542년)에 아도화상이 비로암이라는 이름으로 개창했다고 한다. 진평왕 때라면 신라통일 전이니 백제 성왕 때라고 해야 바르다.

선암사 모니터링 구간은 사하촌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 경내 구간, 큰절에서 운수암에 이르는 구간, 큰절에서 대각암에 이르는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찰 주변의 조류들은 숲속보다도 사하촌 주변에서 더 다양하게 관찰된다. 사하촌에 들어서자 봄에 날아드는 여름철새이자 맹금류에 속하는 새홀리기 한 마리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찌르레기 소리가 들린다.

조계산에는 60여종의 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서들은 기록하고 있다. 특정종으로는 붉은배새매, 소쩍새, 새홀리기, 쏙독새, 청호반새, 물레새, 물까마귀 등이 있다.

사하촌을 지나면 선암사까지는 1km 남짓한 흙길이다. 비가 온 다음이라 군데군데 패였지만, 포장길보다 훨씬 생태적일 것이다.

숲길 왼쪽으로는 계곡이다. 선암사 계곡은 상사호로 들어가는 선암사천의 상류지역이다. 수질이 양호해서 선암사 영역에서는 갈겨니, 버들치, 돌고기 등이 관찰되었다.

승선교(昇仙橋)는 계류의 바닥에 있는 암반을 초석으로 하여 돌을 무지개꼴로 쌓았다. 무지개다리를 홍교(虹橋)라고 하는데, '虹'자는 자벌레가 기어갈 때 허리를 구부린 모양에서 따온 것이다.

삼인당(三印塘)은 연못 안에 섬을 띄운 점이나 숲그늘 속에 자리한 것을 미루어서 애초에 영지(影池)보다는 연지(蓮池) 성격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법인(三法印)은 천길 물속보다 깊고 오묘하지만, 이 연못이 만드는 생태계 또한 무량하다. 산에서 내려와 작은 폭포로 떨어지는 물은 유기물을 연못으로 실어 나르고, 그 유기물을 수많은 미생물이 분해하고, 미생물 분해과정에서 생긴 질소나 인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여 살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연못 속의 수서곤충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니 생태계의 인드라망이 따로 없다.

선암사의 좌향은 장군봉에서 동서로 흐르는 계곡을 감싸 안은 남향이다. 지세는 비교적 넓고 경사진 산자락이다. 선운사 공간 배치의 미덕은 깊고 그윽함에 있다. 각 전각들은 대웅전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높고 낮은 석단 위에 저마다 크고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선암사 각 영역의 전각들 사이에는 골목 같은 고샅길이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서 마치 한옥마을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각 영역의 조경들도 왕실의 원찰에 걸맞게 화려하고 식생도 다양하다. '사철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절'이라는 말이 공치사만은 아니다.

선암사에는 80여 종의 조경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기록에 담아둘 만한 것들로는 무우전 담장에 늘어선 600년 된 매화나무들, 선불전 옆의 와송, 칠전선원 주변의 영산홍과 자산홍, 장경각 앞 측백나무, 종무소 주변의 처진벚나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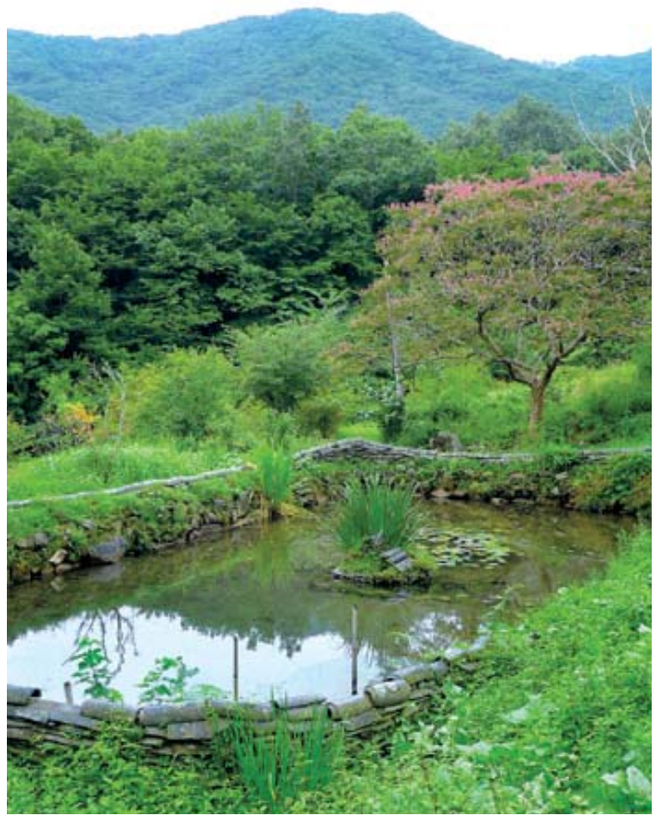
남도의 따뜻한 기후 덕택에 다른 절에서 보기 힘든 난대수종들도 경내에 제법 많다. 금식나무, 아왜나무, 은목서, 남천, 동백, 남경도, 무화과, 팔손이, 유카….

금식나무는 소금끼가 미치는 해안지방이나 섬에 자라는 난대상록수이다. 높이는 3m 안팎으로 자라고, 잎은 타원형으로 마주난다.

장경각 앞 측백나무는 사찰에 심어진 측백 가운데 가장 우람한 몸집을 자랑한다. 회갈색의 줄기에서 관목처럼 많은 가지가 뻗어 나오고, 그 가지에 비늘잎이 무성하게 돋는다.

선암사 경내에는 연못도 많고, 샘물도 많다. 달마전의 다조(茶槽), 삼성각 앞 방지(方池), 설선당 옆 쌍지(雙池), 일주문 옆 지원(池苑), 그리고 삼인당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든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물 뿐인가. 어디를 걸어가든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눈에 보이는 조경보다 물소리 새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경이 더 깊고 그윽하다. 유난히 화마의 장난이 심했던 선암사, 사시사철 들리는 물소리는 화마(火魔)를 범접치 못하는 자연의 진언(眞言)이 아니겠는가.


대각암 연못.

**특정종인 붉은배새매 등 60여 종의 새들 서식**
**무우전 600년 된 매화나무 기록에 담아둘 만**
**차밭 방화벽 기능…대각암 연못 자연성 뛰어나**

사철 푸른 차나무도 엄연한 난대수종이다. 선암사 차밭은 일주문 앞과 절 뒤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뒷밭이 훨씬 넓다. 선암사 차밭은 산불이 경내로 옮아붙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이를 내화수림대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차밭 뒤로 동부도와 북부도가 자리하고 있다. 선암사 가을꽃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은꿩의다리, 등골나물, 잔대, 멸가치, 참취, 짚신나물, 며느리밥풀, 벌개미취, 고려엉겅퀴, 곰취, 오이풀, 산박하, 마타리, 단풍취, 까실쑥부쟁이, 쑥부쟁이, 왕고들빼기, 진득찰, 미역취, 맥문동, 쇠무릎, 도둑놈의갈고리 등이 관찰되었다.

은꿩의다리는 한국특산식물로서 중부이남 산속에 분포한다. 키는 50cm 안팎, 줄기에 드문드문 마디가 있고, 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꽃은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연붉게 핀다.

등골나물은 가을 전령사이다. 여러해살이 국화과 초본으로, 전체에 가는 털이 있다. 줄기는 70cm 정도로 곧게 서고, 줄기 끝에 희거나 자주빛이 도는 꽃이 자잘하니 모여서 핀다.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먹는다.

싸리는 1970년대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절에서 생울타리용으로 심으면 고색(古色)에 어울리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숲속의 부도나 무덤 주변은 숲이 없어서 양명하다. 그늘진 숲속보다는 초본들도 다양하고, 햇볕을 좋아하는 곤충들도 많이 모인다. 선암사 주변에서는 절 주변, 대각암 주변, 동부도전과 서부도전 주변 등에서 많이 관찰된다.

애기세줄나비는 이름 그대로 몸집이 작은 편이다. 흑갈색 날개에 흰색의 띠줄이 3개 있다. 남한 전역, 주로 물이 가까운 숲 가장자리에서 자주 관찰된다.

뿔잠자리는 긴 더듬이가 뿔같이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날개의 길이가 7cm 안팎이며, 몸통에 황색의 띠무늬가 넓게 나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길다.

차밭 옆으로 2기의 중수비가 준수한 용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수비 앞길로 인적 드문 호젓한 숲길이 폭포로 이어져 있어서 가끔 스님들이 포행에 나서기도 한다.

선암사의 해우소도 볼거리이다. 용변 후에 낙엽이나 톱밥 같은 매질(媒質)을 뿌려서 똥을 건비(乾肥)를 만들어 그것으로 유기농을 했다. 얼마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었다. 깨끗하지만, 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일 년 내내 환풍기를 돌려야 하고, 삼동 내내 난방기를 돌려야 하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대각암으로 가다보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조림한 편백과 삼나무들이 상록수림을 만들고 있다. 선암사 주변엔 편백과 삼나무 식재림이 많은데, 수령은 50년 안팎이다. 이들 군락에는 조릿대, 진달래, 산딸기, 작살나무, 쥐똥나무와 같은 키 작은 목본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각암 앞에 자연성이 뛰어난 연못이 있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비롯해 다양한 수서곤충들이 저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폐기와로 낮은 담을 쌓은 것도 운치를 더해준다.

북암이라고도 하는 운수암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이 구간 역시 활엽수가 주종을 이룬다. 선암사에서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구간에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털조장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때마침 붉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열매 표면에 짠 맛이 나는 분이 피기 때문에 '염부목(鹽膚木)'이라고도 불리는 붉나무에는 오배자(五倍子)라는 벌레혹이 달리는데, 타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절에서는 상처 치료 약재로도 썼다.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려면 삼인당 앞 선각당 옆길로 오른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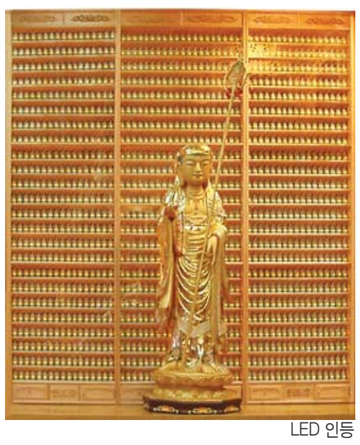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실을 이루려면…**

문 한 해의 수확을 의미하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풀포기 하나도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서 맺은 결실을 대자연에 회향을 하는데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 저 자신은 정말 한 해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자주 큰 나무들이 되어서 결실을 맺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저의 내면의 근본과 상봉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답 우리가 생각하면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또 보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속에 내 자생중생들이 많은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없노라 하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외부의 모든 생활 자체도 혼자 사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여기에도 무척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즉 말하자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이건 비유하는 겁니다. 밥을 지어야 할 텐데 소켓이 맞지 않으면, 거기다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化)하게 만들어야 바로 그게 화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소켓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즉 말하자면 만약에 소켓이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그림 · 최주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이, 미래에 올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은 지금 나오고 미래의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업식 그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의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지고 과거의 업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딴 데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맡기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아픈 거를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하고 관(觀)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이지.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위에서부터 직결이 돼 있고, 아래서부터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마음이 한데 찰나에 합쳤다가 찰나에 떨어지고 찰나에 합쳤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항상 둘이 아님을 뜻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법좌(法座)를 낼 수가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까닭에 바로 진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이 돼야만 되지 과거의 나가 즉, 전의 조사(祖師)들은 부(父)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나가 바로 나의 조상이니까 '부'고, 현실의 나가 '자(子)'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할 때,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둘이 아닌 도리의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봉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전체 주장자와 주장자가 둘이 아니게끔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이론으로 떨어지니까 법이 될 수가 없고 법설이 될 수가 없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 음파가 한데 떨어지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자가 날 수가 없죠. 그걸 성자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건 생산해 내는 생산처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 마음 자체가 생산처가 되어서 바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법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덮어놓고 쪼죠.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 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딱따구리가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듯, 뚫어져서 그 나무의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서 또 생산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깨달으면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문 저의 동생이 3년 동안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살아났는데, 지금 다시 재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좋겠는지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할 일도 아직 많은데 편하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더 살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 줘야 할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난 말입니다, 죽고 사는 거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릴 듣는다면 참 냉정하다고 할 테죠. 그러나 본래 죽는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텅텅 빈 데 텅텅 빈 것이 오고 갈 뿐입니다, 오고 가는 사이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으면 그렇게 걱정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맨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에 동그마니 천야만야한 데 오똑하니 섰으면 거기서 벌벌 떨고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평전에 섰다면 아주 활보할 겁니다.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 옷을 벗고 또 새옷을 입게 되면 만날 마찬가지고 지루하지도 않건만, 사람이 옷 벗으면 옷을 벗는다고 야단입니다. 찢어진 옷이라도 그대로 입고 있어야 속이 후련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세 군데나 찢어져서 그게 너털거리고 살이 보인다면 창피스럽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얼른 벗어 버리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찢어진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옷을 벗는 데 눈물을 흘리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부처님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옆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옷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물론 죽는다 산다 이런 것에도 착을 두지 마십시오. 살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입은 거를 벗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근본에 의해서 찢어지지 않았으면 더 입을 것이고 찢어졌으면 벗을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은 자기 각자 주인공이 불성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을 믿기 이전에, 저 바깥을 믿기 이전에 참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부처를 진짜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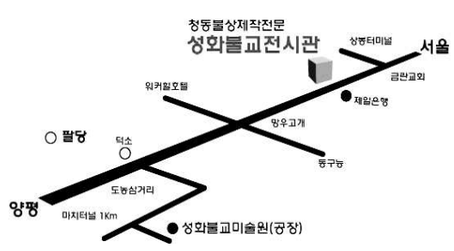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 공한 데서 나오는 것 공한 데다 놔야! 이것이 화두!

☞21면에서 계속

**청정한 세계를 보았는데…**

문 저는 시민 선방을 다니면서 10년 가까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하는데, 물을 떠서 이쪽으로 끼얹고 한 번 더 이렇게 끼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듯하면서, 그냥 눈이 번쩍하면서 아주 청정한 세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그건가? 이게 뭐가 나인가?' 하는데 그때 저는 거기서 저라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큰 맑은 물에 사공이 배를 젓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그것이 나로구나.' 할 때 달과 빛이 한눈에 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그때 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라는 뜻이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아닌가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것이 나로구나.' 하는 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심도 만심이요, 만심이 일심이니 일심도 내세울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깥으로 내가 어떠한 청정한 세계가 보인다 할지라도 본 바가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바가 없어요. 또 나라고 한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즉 말하자면 오관을 통해서 본 것이지, 진짜 누진에 의해서 청눈이, 진짜 온 누리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천안통이 있다 할지라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 자체가 내세울 게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오신통을 내가 부릴 줄 알아야지, 오신통에 내가 말린다면 안 되니까 철저히 그걸 막았죠. 보는 것 가지고, 듣는 것 가지고, 헤아리고 냄새 맡고 이러는 거 가지고, 타심통이니 또는 숙명통이니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도를 통했다' 한다든가 '내가 나를 봤다'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아주 선종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밥을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오신통에 의해서 지금 여여하게 돌아가는 이 자체가 오신통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통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 속에 그 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이 거기서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고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거기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을 끊어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 한 그릇, 빈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도 담음이 없이 모든 것을 한데 융합해서 감사하게 놓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아마 시큰둥하게 익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 나무에서 무르익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큰둥하게 열린 것을 열렸다고 이것이 익었는가보다 하고 모두 온통 야단들을 한다면 그것이 그냥 떨어지게 되는 이치도 있습니다. 미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온 게 화두예요! 색이자 즉 공이고 공이자 즉 색이니 어찌 이게 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공했다는 거는, 텅 비었다는 거는, 없다는 거는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것이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거죠. 그러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놔야죠. 이것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바로 화두라,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가 화두거늘 화두에다가, 공한 데다가 또 공한 놈의 화두를 또 잡아?

예전에 석존 시대에는 화두를 따로 주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따로 모셔 놓지도 않았고요. 선방을 따로 해 놓고 따로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는 거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그냥 참선이거늘 어찌, 앉

> 내 마음의 안테나를
> 세워놔야
> 일체제불의 마음이
> 내 마음을 통해서
> 불이
>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았다가 일어나면 다 했다고 할 것이고, 앉았으면 참선한다고 할 것이고, 선방에 가서 하면 선방에 왔으니까 나는 지금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집에 오면 '난 집에 왔다고, 선방에서 지금 집에 왔어, 방금.' 이럴 것이고. 그러니 선은 항상 조금 갔다 조금 그만두고, 조금 갔다 도로 오고, 조금 갔다 도로 오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끊어져요. 그러니 항상 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시기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 선원에 다닌 지는 한 일 년 정도 되는데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습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나'라는 집착에 빠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십시오.

답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닥쳐오든지 간에, 자기가 '좀 놔야지, 왜 놓질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호령을 치세요. '요놈아, 그래도 너라고 자꾸 그래? 놓지 못하고!' 하고 자문자답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됐다가 바로 자기가 중생이 됐다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하는 거죠.

답답하게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는 안 나와요. 딴 데서 주고 뺏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허허, 참, 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말이에요. 참 그게 재밌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야, 그것 좀 놔라.' 이러기도 하고 '너 참 슬기롭게 잘해 나가는구나.' 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궁둥일 쳐 줘요. '야, 너 슬기롭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색경을 한번 보면서 색경에 내비친 그 입에다가 입도 맞춰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네 진짜로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 무서운 것도 타개해 나가니 참 감사하구나! 빈손 감사해.' 하고 뽀뽀도 해 주고…. 전체가 자기 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에요. 즉 한 솥에 죽 끓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딴 데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 넣으면 되요. 아주 그렇게, 자꾸자꾸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리가 터집니다, 샘솟듯. 꼭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난함도 무릅쓰고 한 푼이 되든 두 푼이 되든 심중 깊이 생각하고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 공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참, 여러분이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사는 데 얽매여서 컴컴해졌을 뿐이지, 허, 먼지가 끼어서 그럴 뿐이지 본래 부처님이시로구나. 그러니 이렇게 한 푼이라도 새 돈으로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처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님들이 잘못 마음을 먹고 이걸 거저 생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른 쉽게 말해서 그것이 바로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갖다 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금으로 잘못 알고 잘못 쓰게 된다면 모두 컴컴하게 한세상을 또 살게 이 세상에 또 나올 테니 참, 그것도 잘 생각할 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뜻을 다 헤아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쓰라고 고사를 드려도 그렇게 잘못 쓰질 않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요다음 생에, 아니 요다음 생이 아니라, 내일도 요다음 생이니까요. 한번 만나 보시면 내 이 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옷을 벗고 요다음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꼭 한 번은 거칠 거예요. 같이 만나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다 부처니까.

**귀신에 씌지 않으려면…**

문 요즘 들어서 귀신의 존재나 영혼에 대한 내용을 T.V.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지만 자꾸 보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귀신에 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사람이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여러분이 바깥에서 산 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든지,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기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여건이 있죠.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

> 딱따구리가 덮어놓고 쪼아서
> 나무가 뚫어지듯이
> 여러분도 덮어놓고 무조건
> 내 큰 나무에
>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렵니까. 바깥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타의에서 와 가지고 "얘, 난 아무개다." "난 아무개야." "난 네 할아버진데." "난 네 아버지야." "나는 아무 때 죽은 누구다." 이러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미쳐 죽을, 환장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여러분을 접해 가면서 수없이 겪어 왔던 일입니다.

너무 지겨워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입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 너가 장난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장난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거다 저거다 들고 나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타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다, 바로." 이렇게 얘길 하죠.

다행히 그걸 들으면 즉시 낫고 그걸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낫지도 않죠. 타의에서 온 거는 참 빼득빼득하니 이런 말을 해 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심부름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쉬울 것을, 들지 않을 때는 같이 들지 못해서 쉽지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났든지 가난하든지 일이 안되든지 그 모든 일체를 막론하고 내가 한생각으로 주인공을 잡았을 때,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우선적으로 자기 참주인공을 들고 나갈 때에,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나갈 때에,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이끌어나갈 때 이 몸뚱이에 어떠한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라는 놈도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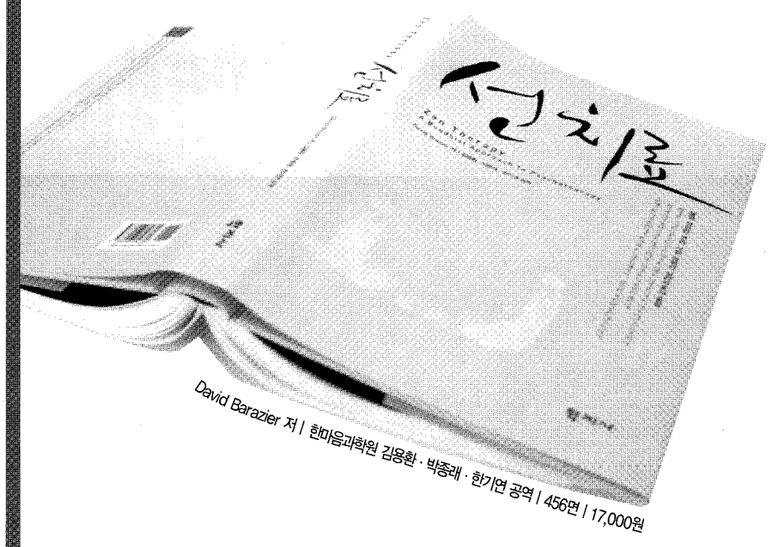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병도 잘 생각하니깐 자기가 죽겠거든. 전자에 둘로 볼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파워를 일으키지.' 하는데, 하나로 볼 때는 '아하! 이거 파워를 일으키면 내 가정이 다 없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선 파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전제하고 믿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죠. 어디, 옆구리가 쑤셔? '어허, 신호가 왔구나. 네가 끌고 다니는 네 시자를 네가 고쳐! 고쳐 가지고 끌고 다녀! 나는 알 바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 자기가 형성시킨 것 자기가 끌고 다녀야지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이날까지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참자기인 것입니다. 수없는 겁을 거쳐 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 가면서 나온 그 역사를 볼 때에는 정말이지 보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너무 아프고 좋고 즐겁고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가 그렇게 능동력 있게 생동력 있게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바로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똥이 마려우면 얼른 가서 똥을 누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뜻이, 팔만사천 법문이 다, 이것은 과학이기보다 진리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벌써 삼천 년 전에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좋은 법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느니라. 병 자체뿐 아니라, 병으로 꼬집어 비유를 들어 말했지만 일체 만법이 다 거기에서 나고 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선치료

동양 정신인 선과 서양 과학인 심리치료의 융합

심리치료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신성한 행위다.
현대생활은 그러한 신성함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은 그것을 향상시킨다.
선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며, 자아실현을 넘어서 있다. 매일매일의 선수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Z·E·N·T·H·E·R·A·P·Y



**David Brazier**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온 심리치료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 수행자다. 아미타 트러스트(Amida Trust)라는 수행 단체(http://www.amidatrust.com)를 조직하여 불교 심리치료의 교육, 참여 불교 프로젝트의 추진, 현대적인 수행 공동체의 개발 등 불교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장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매튜 플릭스타인 저 | 고형일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전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박성희 저 | 각권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❶ 마음과 상담 ❷ 불교와 상담 ❸ 선문답과 상담
❹ 논어와 상담 ❺ 퇴계유학과 상담 ❻ 도덕경과 상담
❼ 모리타 상담 ❽ 나이칸 상담 ❾ 동사섭 상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불자 세상보기

서 동 석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 군대 '가고' '안가고'의 차이

1983년, 12월. 국가보안법으로 2년형을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해 겨울은 엄청 추웠다. 감방의 마실 물은 금방 얼어붙었다. 한낮의 햇볕은 그만큼 고마웠다. 낮 시간, 교도소의 너른 마당에서 해바라기 삼아 천천히 걷는데 일반수 가운데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도무지 남에게 해코지를 할 인상이 아닌 청년들이었다. 네다섯 명 씩 모여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나처럼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나를 감호하던 교도관에게 그네들의 정체를 물었다. 알고 보니 그네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어기면 감옥 간다. 하여 눈물을 삼키며 입영열차를 타야 한다. 나라는 어떻게든 '군인의 길'을 충실하게 걷도록 국민을 계몽한다. 그 옛날 머리터럭이 길다고 가위질하던 군사정부도, 왕십리역에서 애인과 이별을 슬퍼하며 입술을 포개던 입영청년에게만큼은 관대하였다. 오히려 그 애달픈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청년들의 입대를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삼년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은 애인'의 전설이 이 나라 사내들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다. 사내라면 군인답게 살기를 은근히 강요한다. 굵고 짧게 살라고 한다. 가난하지만 착하게 그리고 오래 오붓한 가정을 꾸리면 추한건가? 그런 게 이 나라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였다. 그네들은 감옥에서도 '전쟁'을 전제로 총을 잡아야 하는 현실을 거부한 저희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파쇼도당을 타도하자는 외침 때문에 징역을 사는데 그네들은 전쟁 없는 세상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라고 믿어 젊음을 열쳑의 담장 속에서 보냈다. 그네들이야말로 양심수다. 나는 민중을 착취하는 국가를 뒤엎고 새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데 그네들은 조용하게 '평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야릇한 일이 아닌가? 지극하게 평화를 말하는 불교신자들은 착하게 군대에 가서 전쟁훈련을 하는데 '야소쟁이'는 고난을 감수하며 입영을 거부하다니….

다행이 군대 '끌려'가지 않아도 징역 살지 않게 생겼다. 며칠 전에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영기간의 갑절로 사회봉사를 하게 한단다. 괘씸하니 이런 벌을 주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대개 '여호와의 증인'인 8백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입영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는 판에 정부의 이런 방침은 참 잘한 일이다. 전쟁훈련을 거부한다고 징역을 살게 하는게 제 정신인가? 멀쩡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국가지침'은 진즉에 없어져야 했다. 인권유린이 따로 없다. 일본이 군사훈련하면 난리를 피면서 왜 이 나라에서는 미군과 함께 조국강토를 짓밟는 군사훈련은 열심인가?

이 나라의 해병대는 참 특이하다. 동네마다 '누구나 해병이 되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는 시뻘건 글씨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군대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 그것도 돈이나 권력이 있는 집구석의 자식들 때문에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가슴에 멍이 든다. 그런데, 그런 나라지만 해병대는 지원자가 넘친다. 재수에 삼수까지 한단다. 정말 '누구나'가 갈 수 없는 군대가 해병대다. 서울대학교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우니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턱없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가끔 정신교육 한다면서 어린 청소년이나 기업체 임직원, 어떤 때는 아가씨들만 따로 모아서 며칠 씩 '빵이' 치는 훈련을 한다. 그래도 인기가 높다. 돈 내고 고된 훈련을 받는다. 돈 주면서 군대에 끌고 가는 '국민의 의무'는 싫어하지만 해병대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다. 신체 건장하고 정신 멀쩡하면 이십대 초반에 군대에 가야한다. 군대 갔다 오면 취직하는데 가산점을 준다. 대신 안가면 감옥가야 한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 자원해서 해병대는 가는데, '군바리'는 안 되려고 한다. 참 웃기는 현실이다. 해병대에는 뭔가 있나 보다. 그게 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참에 대체복무만이 아니라 국민개병제인 '징병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게 한다면 지원자는 충분할 것이다. 나는 대체복무를 넘어 모병제의 시행을 주장한다.

## 현대불교 독자위원회의 '평가와 의견'을 들어봅니다

# "다음 특집은 뭘까? 궁금해"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는 640호(8월 8일자)~646호(9월 19일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김남기 · 김시열 · 손재현 · 이남숙 · 이상호 · 한주영 위원 (가나다순)>




손재현 : 현대불교신문의 편집 구성은 다른 신문들보다 잘되어 있어 보인다. 일목요연한 편집과 시의적절하게 가미된 디자인요소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편안함을 준다.

이남숙 : 매주 받아보는 신문의 면 하나하나 기사짜임은 나무랄 곳 없이 편안하고 좋다. 이런 부분은 중앙일간지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꼭지마다 짭짤하게 알찬 내용은 참 좋다.

김시열 : 현대불교신문의 다양한 변화 시도는 매회 신선하며 애독자 입장에서 감사하다. 일례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특집호 가운데 백중 특집호(642호)를 들 수 있다. 봉축과 여름 특집호로 이어지면서 '특집호=색지'라는 공식을 깨고 백중 특집호의 별지를 색지로 한 시도도 좋았다.

출판사를 운영하다보니 특히 출판면을 주의 깊게 본다. 한승원 선생의 소설 <추사>를 소개하는 글을 서간 형식을 빌어 한 것과 같은 기사는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 외 부단하게 이어지는 편집, 구성의 파격적인 시도는 현대불교신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 변화시도 신선…컨텐츠까지 이어져야

이상호 : 원순 스님의 '선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이창숙 연구원님의 '인류문화속의 차' 등 643호에 연재를 마치는 코너가 많았다. 애독자 중에는 서운한 분들도 많겠지만 현대불교가 다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한주영 :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연재물로 불교교리나 수행에 관해 수준 높은 정보와 다방면의 지식을 얻고 있다.

이남숙 : 새로 시작된 송찬우 교수의 연재는 매우 기대된다. <지관좌선법요>를 통한 묵조 · 지관 · 간화의 정리가 세심하고 명료하게 쓰여 있어 재가불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김시열 : 다양한 변화시도는 좋으나 내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이 옷, 저 옷 옷은 자주 바꿔 입고 나오기는 하는데 말투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라 할까. 기사 가운데 연재물이 많아 매주 신문을 읽다보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크다.

김남기 : 현대불교가 교계에서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신문 아닌가. 적재적소에 가미된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이 신문의 각 장을 넘길 때 시원한 손맛을 준다. 다만 사회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독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 필요

이상호 : 645호의 '영통사 돌출발언 물의 김규철 대표 공개사과' 기사에 대해 당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돌출발언의 내용을 짤막하게 언급해 준다면 독자들이 다시 관련기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주영 : 646호 '가족이 먼저? 종교가 먼저?'의 기사는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 시의적절한 기획기사였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대응방법이 아쉬웠다.

이남숙 : 신행수기 공모를 보니 상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감사할 따름이고 다행으로 생각한다. 법회 관련 기사가 나면 찾아가는 편인데 가끔 정보가 지났거나 맞지 않아 안타깝다. 행사안내 같은 것은 미리미리, 보다 정돈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사회적 이슈에 보다 적극 나서주길

이남숙 : 646호 '선지식을 찾아서' 코너의 대선 스님의 "수행자는 가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읽으니 밥을 위해 법을 팔지 않는 올곧은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큰스님, 종립학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요즘 불교계가 많이 소란한 시점이라 더 크게 닿는 말 같은데…. 이런 때에 현대불교가 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김남기 : 문화재관람료 문제만 보아도 불교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냉랭해졌다. 다른 이야기로 이명박 후보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할 때와 지관 스님을 친견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신문사의 반응은 답답하다. 불교계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현대불교가 불자들을 리드해 달라.

※이번주 '종교자유칼럼' 쉽니다.

## 불자의 눈

### 책임질 사람은 책임 져야

동국대 교수들이 이사회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교수들의 요구가 형성됐다. '신정아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와중이라 동국대 교수들의 요구는 각이 매섭다.

이제 신정아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정아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군 상황이 아닌가. 거기에 영배 스님이 창건한 흥덕사와 변양균 실장이 재적 신도로 등록된 보광사, 동국대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가 소속된 월정사 등에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교부금이 지원된 것에 대한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신정아 사건'은 불교계에 매우 위험한 불길로 번지고 있다. 학력의 진위가 발단이지만 이제 사건은 학력의 문제를 떠나 권력의 비호라는 영역 속에서 교부금의 지원 과정까지 파헤쳐 지고 있다. 정말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번져갈지 아무도 모를 '요원의 불길' 같다.

이 불길을 잡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가장 빠른 진화 수단으로 보여 진다. 동국대 교수들의 이사진 사퇴 요구는 학교와 종단 나아가 불교계를 빨리 신정아 사건에서 헤어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정아씨의 학위를 놓고 이사장 영배스님이 '진짜'를 확신하는 발언과 함께 '아니면 책임지겠다'는 말도 공식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는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종립학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가능한 기구를 동원해 책임 소재도 가리고 법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종단차원의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 교부금 지원 오해 없도록

전통사찰에 문화재 보존과 수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인 셈인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제기되는 교부금관련 의혹들이 교부금 자체의 신선도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파장은 메가톤 급이다. 이 사건과 관련 연일 터져 나오는 이슈는 대개가 의혹과 진실 찾기 게임으로 맥을 함께 한다.

거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부금 문제다. 동국대 재단 이사 스님들이 소속된 사찰로 적지 않은 금액의 교부금이 지원됐고 흥덕사의 경우 압력행사가 인정되고 있어 교부금 지원이 비리의 결과물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부금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법적 통로를 통해 정당하게 요청되고 적법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다. 이 돈과 관련된 부조리가 드러난 적은 거의 없다. 신청하는 전통사찰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는 '쉽지 않은' 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돈이 너무 쉽게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드러나며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사찰에 피해가 갈까 염려된다. 조계종은 사건의 흐름을 보고 있지만 말고 교부금 지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 국민적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 주지직인 무효공고

● 사찰명 : 교헌사
● 전임주지 : 혜가(위술환)
● 주 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위 사찰의 전임주지 직인 및 교헌사 직인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9일

사)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 주지 홍선 법하

## 탈종공고

● 사찰명 : 태조사
● 주 지 : 정관(김홍근)
● 주 소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81-10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8일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 탈종공고

● 법 명 : 지관(손진욱)
● 사찰명 : 감로사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38

상기 본인 및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탈종공고

● 법명:혜환(이옥순) 창건주
● 승번:04-330
● 법명:성운(방종혁)
● 승번:041-176
● 사찰명 : 용화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606번지

위 사찰과 승려 2명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문의 : 02-2004-8234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 현대불교신문 새로운2008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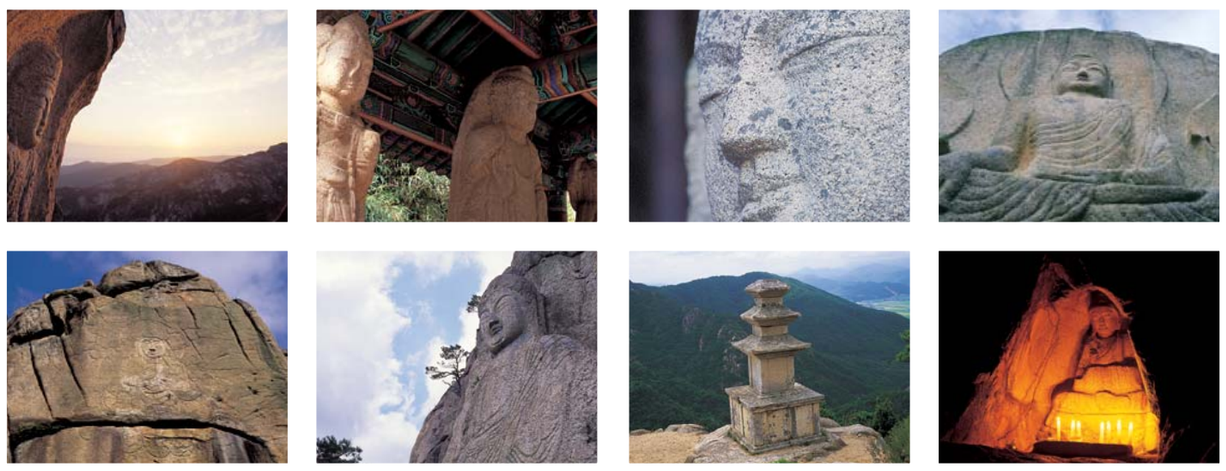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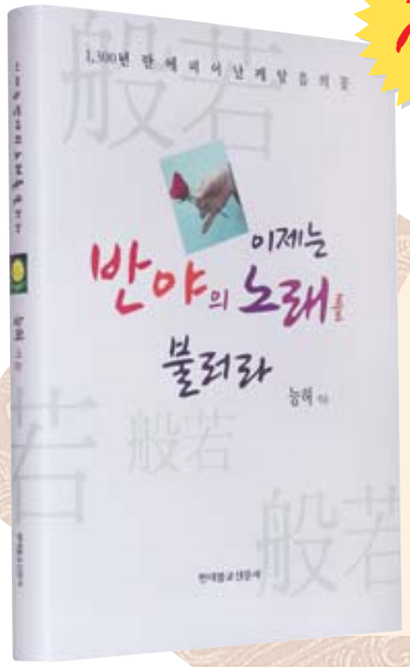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혜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